

## 신라 점찰법회와 진표의 교법 연구

A Study on Jum - chal Rite of Silla Buddhism and Ven . Jin - pyo 's Buddhism

---

저자 (Authors)	김영태 Young Tae Kim
출처 (Source)	<a href="#">불교학보 9</a> , 1972.10, 99-136(38 pages) <a href="#">BUL GYO HAK BO 9</a> , 1972.10, 99-136(38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a> Institute for Buddhist Culture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392941">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392941</a>
APA Style	김영태 (1972). 신라 점찰법회와 진표의 교법 연구. 불교학보, 9, 99-136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25.137.52.*** 2021/09/23 14:29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新羅 占察法會의

## 眞表의 敎法 研究

金 煥 泰

### 차 례

- 緒 言
- I. 占察法會의 史實
  - 1. 統一前
  - 2. 統一後
- II. 所依經典으로서의 占察經
  - 1. 經의 內容과 占察法
  - 2. 經의 傳譯 및 그 眞僞문제
- III. 眞表의 占察敎法
  - 1. 眞表의 行蹟
    - (1) 現存 諸傳
    - (2) 諸傳을 통해 본 全般的 概要
  - 2. 眞表의 戒法과 그 中心思想
  - 3. 占察敎法의 確立
  - 4. 占察敎法의 繼承者
- 結 語

### 緒 言

新羅의 역사에는 아직도 밝혀져야 할 문제가 많이 있다. 그 가운데서도 新羅 佛敎史에 있어서 占察法會의 문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三國遺事를 통하여 新羅時代에 占察法會가 적지 않게 행하여졌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 특히 統一期의 全盛時代에 그 文化的 黃金期라고 할 수 있고, 佛敎文化가 그 絶頂에 이르렀던 35代 景德王 때의 高僧 眞表에 의해서 占察法會는 새로운 意義를 지닌 敎法 形態를 갖추게 되었음을 볼 수 있다.

眞表를 新羅 法相宗의 宗祖로 삼고 있는 學者도 있으나, 사실상 우리는 眞表의 역사에서 法相宗 관계의 沙門이었다는 흔적을 찾아 볼 수가 없다. 오히려 그는 철저한 占察 懺悔法의 實踐者요 信奉者였으며, 널리 占察戒法을 說한 新羅의인 占察敎法의 集成者였음을 보게 될 뿐이다.

통일 이전부터 있었던 新羅의 占察法會는 眞表에 이르러 새로운 樣相으로 展開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眞表가 이루어 놓은 占察敎法은 종래의 占察法會와는 달리, 당시의 國民을 敎化하는 새로운 佛敎의 한 敎法(형태)으로서 新羅社會에 軍臨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眞表에 의해서 이룩된 占察敎法은 지금까지의 法會儀式으로서

만의 占察法會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新羅의인 特殊한 類形의 佛敎형태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아 眞表는 통일 전성기의 佛敎에 있어서 독특한 新羅佛敎인 占察敎法(懺悔佛敎)의 창설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眞表가 비로소 이룩해 놓은 占察敎法은 新羅 특유의 佛敎的 所産이며, 당시 사회에 至大한 感化력을 발휘한 하나의 佛敎流派였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眞表의 占察敎法을 考察하기 위하여, 먼저 新羅時代에 행해졌던 占察法會부터 살펴보고, 다음에 그 行儀와 思想의 根據가 되는 占察徑을, 그리고 眞表의 行蹟을 통한 그의 敎法을 차례로 봄으로써 新羅佛敎에 있어서의 眞表의 位置와 占察敎法의 內容을 究明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 I. 占察法會의 史實

三國遺事에서 高僧 眞表의 行蹟<sup>1)</sup>을 살펴보면 특히 占察戒法(修懺求戒 證果簡子) 및 占察法會가 중심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러나 占察法會에 대해서는 이보다 훨씬 이전부터 보이고 있다. 文獻에 보이는 占察法會의 史實을 時代順으로 옮겨서 整理해 보기 위하여 우선 便宜上 統一以前과 統一以後로 나누어 보았다.

### 1. 統一 이전

現存文獻에서 新羅 통일이전 즉 三國時代에 高句麗와 百濟에 占察法會가 행하여졌다는 記錄을 볼 수 없으므로 여기서는 자연 新羅에만 국한시키지 않을 수 없다. 통일이전의 新羅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를 통하여 가장 먼저 보여지고 있는 占察法會 관계의 기록은, 新羅 제26代 眞平王 때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보다 이전에 占察法會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알 수가 없다.

眞平王 때에는 占察法會가 제법 널리 행하여졌던 모양이다. 三國遺事에서 眞平王代에 占察法會의 設置記錄을 두 곳에서나 보게 된다. 하나는 圓光法師가 占察寶를 두었다는 것이고, 하나는 比丘尼 智惠가 仙桃山 神母의 現夢에 의하여 占察法會를 베풀었다는 이야기이다. 이것을 다음에서 각각 보기로 한다.

#### (1) 嘉栖寺(圓光)의 占察寶

眞平王代의 高僧으로서 國王을 비롯하여 온 國民에게 聖人처럼 받들리었던<sup>2)</sup> 圓光法師의 行蹟에서 占察法會의 故事를 보게 된다.

1) 三國遺事 卷第4 義解 第5 眞表傳簡, 同 關東楓岳 鉢淵藏石記.

2) 唐高僧傳 第13卷 新羅皇隆寺 釋圓光傳(三國遺事 卷第4 義解第5 圓光西學에 引用).  
“光往還累紀 老幼相欣 新羅王金氏面申虔敬 仰若聖人…….”

三國遺事 圓光西學의 議曰<sup>3)</sup>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이 있다.

法興王(原宗)이 佛法을 일으킨 뒤로 蒼生濟度의 方便(津梁)이 비로소 設置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佛法의 깊은 곳(모든 蒼生을 널리 제도하는 불교의 참뜻)에는 완전하게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마땅히 歸戒 滅穢의 法으로써 愚迷한 蒼生을 開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圓光은 자기가 居住하던 嘉栖寺에다 占察寶를 設置하고 이로써 恒規를 삼았다. 그때 檀越尼(淸信女)가 占察寶에 田畝를 받쳤으니 그것이 지금(高麗 一然 당시)의 東平郡에 있는 田畝 一百結인데 그 古籍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撰者가 三國遺事 속에 圓光法師의 傳記를 收錄하면서, 당시에까지 남아서 전하여 오는 占察寶에 대한 傳說과 東平郡의 田 및 古籍을 根據로 하여 占察法의 設置를 想起하여 末尾에 附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圓光行蹟을 收錄한 관계의 本文에는 言及이 되어 있지 않음을 보게된다. 이러한 撰者의 附言을 통하여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圓光이 占察寶를 設置하였다는 사실일 것이다. 圓光은 占察法會를 設한 것이 아니고 占察寶를 設置한 것처럼 되어 있어서, 占察寶는 占察法會와는 전혀 다른 것 같은 인상을 주기도 한다.

사실상 占察寶는 占察法會가 아니다. 그러나 이 占察寶는 占察法會를 떠나서 別個로 존재할 수는 없을 것이다. 占察法會를 위한 一種의 契組織이며, 親睦團體를 겸한 占察法會 運營의 약간 經濟性을 띤 常設的인 機構組織體를 占察寶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歸戒滅穢의 法으로써 愚迷를 開曉한다”고 한 것에서 우리는 占察法會의 事어울 짐작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愚迷를 開曉하기 위한 歸戒滅穢의 法이 바로 占察法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더욱 자세하게 알기 쉽도록 풀이한다면,

“圓光은 愚迷를 開曉하기 위하여 歸戒滅穢의 法인 占察法會를 設하였다. 그리고 占察法會의 効率的인 施行運營을 위하여 자기가 居處하던 嘉栖寺에다 占察寶를 多情길 占察法會를 갖게하였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圓光이 占察法을 行하였다는 이 史實은 傳記의 行蹟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居處하던 嘉栖寺에 남아 있는 古籍 및 一百結의 占察寶田을 통하여 알 수 있게된 것이다. 즉 그의 遺迹을 통해서 알려진 史實이라고 하겠다.

## (2) 安興寺(智惠尼)의 占察法會

眞平王 때의 比丘尼 智惠가 占察法會를 設하게된 緣起說話가 三國遺事<sup>4)</sup>에 傳하여져

3) 遺事 卷第4 義解第5 圓光西學의 圓光傳記 末尾 부분에(崔南善編 新訂三國遺事 p.184) 撰者(一然)가 附記한 것이다.

“原宗興法已來 津梁始置 而未遑堂奧 故宜以歸戒滅穢之法 開曉愚迷 故光於所住嘉栖寺 置占察寶 以爲恒規 時有檀越尼 納田於占察寶 今東平郡之田一百結是也 古籍猶存.”

4) 遺事 卷第5 感通 第7 仙桃聖母隨喜佛事.

있다.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比丘尼 智惠는 賢行이 많았는데 安興寺에 살고 있었다. 그는 佛殿을 새로 修理코자 하였으나 힘이 미치지 못하였다. 그런데 하루 밤 꿈에는 風儀가 倬約하고 珠翠로 飾鬢한 한 女仙이 와서 위로하며 말하기를 ‘나는 仙桃山 神母이다. 네가 佛殿을 修理코자 하는 것을 기쁘게 여겨 金 10斤을 시주하여 너의 佛事를 도우고자 한다. 나의 앉은 자리 밑에 그 金이 있으니 그것으로 主尊 三像을 粧點하고 五十三佛과 六類聖衆 및 諸天神과 五岳神君을 壁上에 繪하여, 每年 春秋 二季의 10日에 善男 善女를 叢會하고 널리 一切舍靈을 위하여 占察法會를 設하는 것을 恒規로 삼도록 하라’ 고 하였다. 智惠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나 仙桃山 神祠로 가서 神母像의 座下를 파 보았다. 과연 거기에서 黃金 160兩을 얻고 그것으로 佛殿을 修理하고 神母의 말대로 모두 따랐다.”  
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智惠尼가 神母의 지시대로 모두 따랐다는 것에서 占察法會를 設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때의 占察法會는 每年 春秋 2회에 善男 善女를 많이 모으고 널리 一切舍靈을 위해서 베풀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이 安興寺의 占察法會인 것이다.

## 2. 統一以後

統一以後에는 以前보다 좀더 많은 占察法會 관계의 史例를 볼 수 있다. 그러나 眞表 및 그 系統을 제외하고는 그리 대단하지 못한 것 같다.

### (1) 道場寺의 占察法會

三國遺事 她福不言<sup>5)</sup>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京師(慶州) 萬善北里에서 한 寡女의 아들로 태어나 12세가 되도록 不語 不起하였던 她福(她童)이가, 하루는 자기 母가 死하자 高仙寺로 元曉를 찾아갔다. 元曉가 그를 보고 迎禮하였으나 그는 答拜를 하지 않고, “옛날 經을 심던 암소(馱經犂牛)가 이제 죽었으니 그대는 나와 함께 장사 지내지 않겠는가?”하였다. 이에 응락한 元曉는 她福을 따라가서 她福母를 장사 지내기로 하였다. 活里山 東麓으로 가서 묻으려고 할 때 她福은, “옛날 釋迦牟尼佛은 娑羅樹間에서 涅槃에 드셨는데, 이제도 그와 같은 자가 있어서 蓮花藏世界에 들어가고자 한다.”하는 偈를 읊고는 곧 茅莖을 잡아매니 땅 밑에 晃朗淸虛하고 七寶欄楯으로 樓閣이 莊嚴된 世界가 나타났는데 她福은 母의 屍體를 업고 그 속으로 들어가버리니 땅은 다시 오무려 본래처럼 합하여졌다. 뒷 사람들이 她福의 母子를 위해서 金剛山(慶州 北山) 東南에다 절을 세우고 道場寺라 하였으며 每年 3月 14日에는 占察會를 行하여 恒規로 삼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보이는 她福은 元曉와 同時代이므로 統一以前의 人物이라고도 할 수 있다.

5) 遺事 卷第4 義解 第5 她福不言.

그러나 元曉의 後年은 統一된 뒤에 해당되고, 또 蛇福이 華藏界로 들어간 뒤에 後人들이 道場寺를 짓고 占察會를 행하였다고 있으므로, 이 道場寺의 占察會는 마땅히 統一以後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2) 興輪寺의 六輪會

三國遺事 金大城의 이야기<sup>6)</sup>에는 興輪寺에서 六輪法會를 設하였다는 것이 보인다.

35代 景德王 때의 大相으로서 저 유명한 佛國寺와 石窟庵(石佛寺)을 創建하였다는 金大城은 아버지되는 國宰 金文亮의 아들로 태어나기 전에 牟梁里의 貧女 慶祖의 아들이었다고 한다. 貧女의 아들인 大城이 生計를 위하여 傭役하는 주인 福安家에서 勤化僧 漸開를 보았는데, 漸開는 興輪寺에서 六輪會를 設하기 위하여 勸化하러 왔던 것이었다. 福安家에서 施한 布 50疋을 받은 漸開가, “檀越好布施 天神常護持 施一得萬倍 安樂壽命長.”이라고 咒願하는 말을 듣고 大城은 자기 母에게, “하나를 施하여 萬倍를 얻는다고 하니, 생각컨대 우리는 전생에 善을 심지 않았으므로 지금 가난을 겪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또 施하지 않는다면 來世에 더욱 가난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傭田을 法會(六輪會)에 施하여 後報를 圖謀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였다. 母의 승락을 얻어 받을 시주한 뒤에 大城은 죽었으며, 그 布施功德으로 大城은 國宰 金文亮의 집에 태어나 福德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에 보이는 六輪會는 바로 占察法會의 一種일 것이다. 大城의 말에서도 法會라는 말이 明示되어 있으므로 六輪會는 곧 六輪法會이며 이 六輪法會는 占察法會일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 興輪寺의 六輪法會를 設한 때가 대략 언제쯤이나 하는 것이다. 金大城은 景德王 때의 大相이고 다음 代인 惠恭王 10年(大歷 9年 甲寅 774) 12月 2日에 卒하였다<sup>7)</sup>고 되어 있으므로 前生 大城 때에 設하였다는 興輪寺 六輪會는 그보다 훨씬 앞이 되어야 당연할 것이다. 그런데 이 說話의 內題에 ‘大城孝二世父母 神文代’라는 것으로 미루어 여기의 神文王代가 大城의 前生時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다. 神文王代(681~691)에 牟梁里의 貧女 慶祖의 아들이었던 大城이가 興輪寺의 六輪法會에 施田하고 죽었다가 다시 國宰 金文亮家에 태어났던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한다. 그러므로 여기에 보이는 興輪寺의 六輪會가 神文王代였다고 한다면 景德王代(742~764)에 大相으로 活躍하다가 惠恭王 10年(774)에 卒하였다는 金大城의 年代에 크게 차질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表題에 明示된 神文王代는 貧子 大城의 生前 時代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3) 占察禮懺(臺山 地藏房)

6) 遺事 卷第5 孝善 第9 大城孝二世父母 神文代.

7) 同 上.

新羅 淨神大王的 太子 寶川(寶叱徒)과 孝明 두 兄弟가 五臺山에 들어가 修道하다가 弟太子 孝明은 下山하여 王位에 올랐으나 太子 寶川은 王位를 사양하고 계속 修道하여 끝내 文殊菩薩에게 成道記莝을 받았다. 寶川은 장차 圓寂에 들려고 할 때 뒷날 山中에서 行하여야 할 國가를 이롭게 할 행사(輔益邦家之事)를 써서 남겼는데 거기에, “..... 赤任南臺南西 置地藏房 安圓像地藏及赤地畫八大菩薩爲首一萬地藏像 福田五員 晝讀地藏 經金剛般若 夜占察禮懺 稱金剛社.....”라는 것이 있다<sup>8)</sup>.

여기서는 占察禮懺이라 하여 있다. 占察禮懺이 占察法會 그 自體는 아니지만 占察法會의 內容은 될 수가 있다. 占察法에 의한 禮懺이기 때문에 占察法會와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地藏房을 둔다고 하는 것이 있으므로 占察法의 禮懺이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占察法會의 所依經인 占察經은 地藏菩薩이 說主이기 때문이다.

#### (4) 眞表 및 그 후의 占察法會

眞表의 占察法會 특히 그의 占察教法은 本 論文의 主題이며 全般에 걸친 中心 課題이기 때문에 本論의 Ⅲ에서 자세히 言及하고 考察하게 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다만 眞表와 그 後繼者들의 行蹟 가운데에서 占察法會에 관한 것만을 摘出해서 보기로 하였다.

三國遺事 義解 第5의 關東楓岳鉢淵藪石記에는, 眞表가 地藏菩薩과 彌勒菩薩에게서 戒法을 받은 뒤, 널리 教法을 퍼다가 皆骨山에서 鉢淵藪(寺)를 창건하고 占察法會를 열었으며, 그뒤 그의 弟子 永深은 俗離山 吉祥寺에서 占察法會를 베풀었다고 한다.

그리고 心地는 당시 永深이 俗離山에서 果訂法會를 設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곳으로 가서 隨衆禮懺하여 傳法簡子を 물려 받았다고 있다<sup>9)</sup>.

이 心地의 傳에서 우리는 ‘果訂法會’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占察法會를 가리킨 말이다. 여기서 우리는 占察法會가 果訂法會라는 名稱으로도 불리웠다는 것을 알게 된다.

## II. 所依經典으로서의 占察經

앞에서 우리는 新羅의 歷史에서 보여지는 占察法會의 事例를 대강 살펴 보았다. 占察法會는 新羅 社會에서 적지 않게 行하여졌었기 때문에 중요하겠지만, 보다도 當代의 高僧 眞表에게서 더욱 큰 意義를 찾게 된다.

8) 遺事 卷第3 塔像 第4 臺山五萬眞身.

9) 遺事 卷第4 義解 第5 心地繼祖.

이와 같이 新羅의 占察法會를 일기 위하여, 또는 眞表의 寫法을 考索하기 위하여 우선 그 所依經典이 되는 占察經부터 보지 않을 수 없다. 먼저 經의 內容概要와 또 經에서 說하고 있는 占察法을 좀더 자세히 보고, 다음에 經의 傳譯 및 그 眞僞문제 등에 관하여 잠시 보기로 하겠다.

## 1. 占察經의 內容과 占察法

### (1) 經說의 梗概

이 經名은 占察善惡業報經이며<sup>10)</sup> 보통으로 略稱하여 占察經이라고 한다. 또 地藏菩薩業報經, 또는 大乘實義經·漸利經 등으로도 불리운다. 上下 兩卷으로 된 이 經은 약 13,100餘字로 수록되어 있다. 經의 內容을 대강 살펴 보기로 한다.

여느 經과 다름없이 이 經도 如是我聞으로 시작되어 있다.

佛陀께서 王舍城의 耆闍崛山中에 계실 때, 神通力으로 廣博嚴淨無碍道場을 示現하여 無量 無邊의 諸大衆에게 甚深한 根聚法門을 演說하셨다. 이때 이 會中에 있던 堅淨信菩薩이 佛滅後 正法과 像法の 時代가 지나고 末世에 이르러 衆生이 鈍根少信하여 得道者가 極少할 때, 어떠한 方便으로 衆生을 開化引導할 것인가를 佛陀에게 물었다. 이에 佛은 곧 地藏菩薩로 하여금 이것을 대답하게 하였다. 地藏菩薩은 過去 헤아릴 수 없는 오랜동안 本願力에 의하여 權巧한 化現을 十方에 나두고 널리 一切刹土에 다니며 五濁惡世의 衆生을 化益하고 있는 善安慰說者이므로 그에게 물어보면 모든 것을 잘 대답할 것이라고 한 佛言에 좃아 堅淨信菩薩이 다시 地藏菩薩에게 請問함에 地藏菩薩은 그 물음에 답하여 說하였다.

佛滅後 惡世의 때에 모든 일에 障礙가 많아 어려움이 가로막혀 善法을 專求할 수 없을 때, 마땅히 木輪相의 法을 써서 宿世 善惡의 業과 現在 苦樂·吉凶 등의 일을 占察할 것이다. 木輪은 小指 정도의 木을 刻하여 그 중간을 方平하게 한다. 이 輪相에는 3種이 있으니 첫째 輪相은 宿世所作의 善惡業種差別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輪이 열개이며, 둘째 輪相은 宿世集業의 久近所作強弱大小差別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輪이 셋이며, 셋째 輪相은 三世中의 受報差別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輪이 여섯개이다. 이리하여 地藏菩薩은 3種輪相의 여러가지 占察方法과 懺悔修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끝으로 189種의 善惡果報差別의 相을 說하여,

“만약 未來世의 衆生들이 吉善과 求하는 바를 얻지 못하여 갖가지의 憂慮逼惱로 怖懼할 때에 應當히 晝夜로 항상 부지런히 나(地藏菩薩)의 名字를 誦念하라. 能히 至心者는 占察하면 곧 吉하고 求하는 바를 모두 얻게 되어 衰惱를 떠날 수가 있다.” 고 하였다(上卷).

10) 高麗大藏經 第13 p. 657~670. 大正新修藏經 17卷 經集部4 p. 839~910.

이어서 地藏菩薩은 堅淨信菩薩의 물음에 답하여 대략 다음과 같이 說하였다.

大乘에 向하려고 하는 者는 응당히 먼저 最初 所行根本의 業을 알아야 한다. 그 最初 所行根本의 業은 一實境界에 依止하여 信解를 修하고 信解力의 增長에 因함으로 급속히 菩薩種性에 들어가게 된다. 一實境界란 衆生의 心體가 從本以來로 不生不滅 自性 淸淨한 것을 말하며, 이 自性淸淨의 衆生 心體가 無明痴暗의 熏習因緣에 의하여 妄境界를 나누고 念著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 妄心은 스스로를 알지 못하므로 망녕되이 스스로 있다(自有라)고 하여 我와 我所를 헤아리는 생각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妄心 그 自體도 또 妄心의 計度에 의하여 나타난 境界도 모두가 그 주된 것은 妄心이다. 妄心이란 一實境界인 一法界를 了知하지 못한 마음이며, 이 妄心은 無明의 力因에 의하여 생기는 것이므로 無明이 滅하면 妄心도 妄境界도 모두 滅한다. 그러므로 오직 一切諸法은 마음을 根本으로 삼으며, 그래서 一切諸法을 모두 마음이라 이른다. 心義에는 心內相과 心外相의 2種이 있다. 또 心內相에는 眞과 妄의 두 가지가 있다. 心外相이란 꿈에 보는 境界와 같은 것으로 오직 心想의 所作이며 無明의 識夢에 의하여 妄境界가 나타나는데 이 境界를 外相이라 한다. 이 內외의 心을 모두 眞如第一義諦自性淸淨心 또는 如來藏이라 한다. 이 如來藏을 妄想計度하면 衆生이 되며, 一實境界를 信하고 六度を 修하면 菩薩이 되고 究竟하여 如來藏을 成就하면 佛이 된다. 이 衆生·菩薩·佛은 世間の 假名差別로서 法身 卽 一實境界는 畢竟平等으로 異相이 없다. 이 一實境界를 信解하려고 하는 者는 唯心識觀과 眞如實觀의 2種 觀道를 修해야 한다. 唯心識觀은 鈍根에 應한 것이며 眞如實觀은 利根이 修할 것이다. 利·鈍의 人이 이 觀道에 의하여 奢摩他 毘婆舍那를 修하면 末世 五濁惡世의 중에서 조금도 두려워할 바가 없고, 모든 障難을 退散시켜 淨心을 增長하여 無量의 功德聚를 얻어 第一義究竟平等法身을 信解하며, 願하는데로의 他方 淨佛國土에 往生할 수가 있다. 만약 他方淨土에 生하려고 願하는 者는 彼國의 佛號를 專念專誦하여 一心不亂하여야 하며, 또 法身을 思惟하는 者는 一行三昧를 修習하여 無生法忍을 이루며, 作佛에 信滿作佛과 解滿作佛과 證滿作佛, 그리고 一切功德行滿足作佛이 있다. ……나(地藏菩薩)는 항상 方便에 의하여 實義를 宣顯하며 初發意의 者로 하여금 怯弱을 떠나게 한다. ……고 說을 끝마침에 佛은 地藏菩薩의 所說을 讚하고,

“이 法門은 占察善惡業報 또는 消除諸障增長淨信 또는 開示求向大乘者進趣方便顯出甚深究竟實義 또는 善安慰說令離怯弱速入堅信決定法門이라고 이름할 것이니, 이 名義에 의하여 너희는 마땅히 受持하라.”

고 堅淨信菩薩에게 付囑하였다. 이에 一切의 會衆 모두 歡喜하여 信受奉行하다.

(下卷)

占察經 上下卷의 내용을 대강 살펴 보았다. 다시 말해서 이 占察經은 五濁惡世의 末

世衆生을 위해서 佛을 대신하여 地藏菩薩이 說한 것으로, 末世衆生이 많은 障難으로 佛의 正法과 諸善法을 信修할 수 없을 때 먼저 懺悔法을 修하여 業障을 소멸시키고, 다음에 大乘으로 나아가는 길을 밝혀놓은 經이다. 그러므로 上卷에는 懺悔法을 修하는 方法과 木輪相의 占法을 說하여 있고, 下卷에는 懺悔를 修得한 佛者가 大乘으로 나아가 佛法의 眞意를 깨달을 수 있는 法門을 펼치고 있다.

(2) 經 所說의 占察法

앞에서 우리는 간략하게나마 占察經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대충 훑어 보았다. 그러므로 經에 說해져있는 占法에 관하여서도 대충 言及이 된 셈이다. 그러나 本經의 經名이 占察善惡業報로서 善惡의 業報를 占察하는 經이라는 것에서도 그러하지만, 보다도 本小考의 主題가 占察法會에 관한 것이므로 특히 이 占察에 관하여서만은 자세히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本經에서 보여주고 있는 占察에 관한 부분을 모두 고찰하여 本占察經이 說하고 있는 占法全般을 좀더 자세히 살펴 보기로 하였다. 어디까지나 本占察經이 說하고 있는 것에 의하여 그 占察法을 다음과 같이 간추려서 보기로 한다.

① 占察法의 名稱과 그 意義

이 經에서 說하고 있는 占察法의 명칭은 木輪相法이다. 이 木輪相의 占法은 佛滅後 五濁惡世의 末世 때에 比丘 比丘尼 優婆塞 優婆夷등 佛敎人이 修行하는데 있어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障礙에 부딪쳐 決定信을 얻지 못하고, 修學에 專念할 수 없어서 憂慮와 疑惑과 悔恨만이 增長하여 一切處에 마음이 明了치 않고 思想이 擾亂하여 修道業을 廢하게 되는 등의 障難이 있을 때, 善惡 宿世의 業과 現在의 苦樂 吉凶의 일을 占察하여 自心을 曉諭하고 所疑事에 決了를 取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木輪相法을 學習함에는 반드시 至心으로 歸依하여 觀하는 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때문에 世間の 갖가지 卜筮에 좃아 吉凶 등의 일을 占하는데에 貪著하여 樂習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이와 같은 世間の 卜筮 占相을 樂習하게 되면 聖道에 큰 障礙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木輪相法은 世間에서 행하는 갖가지의 卜筮 占相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世間の 여러가지 占相은 聖道를 深障하는 아주 좋지 못한 惡習이지만, 이 木輪相法은 聖道를 修習하는데 따르는 많은 障難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方便이라는 것이다. 占을 친다는 것에서는 世間の 여러가지 占法과 마찬가지로이지만 이 木輪相法은 衆生의 어리석은 마음과 無明障을 제거하여 맑고 밝게 해주는 佛法修行의 한가지 方便이라는 데에 중요한 意義가 있다는 것이다.

② 木輪의 製作法과 輪相의 종류

木輪相의 占法을 行하자면 먼저 거기에 쓰이는 道具인 木輪(접대 즉 籤子)부터 만들어야 한다. 小指 정도 크기로 나무를 다듬어서 그 正中을 四面이 方平하게 하고 다른 쪽(正中이 아닌 쪽)은 모두 양쪽 끝머리쪽으로 향하여 비스듬하게 하여, 그것을 손으로

던지면 잘 구를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輪이라고 하며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木輪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그런데 또 이것이 衆生의 邪見과 疑網을 능히 破壞하여 正道로 나아가 安隱處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름을 輪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輪相에는 세가지의 종류가 있다. 첫째 輪相은 10개의 輪으로 하는 것으로 宿世所作의 善惡業種差別을 알게되는 것이며, 둘째 輪相은 3개의 輪으로써 宿世集業의 久近所作과 強弱大小差別을 알게되는 것이며, 셋째 輪相은 6개의 輪으로써 三世中の 受報差別을 알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木輪相의 占相에는 10輪相과 3輪相 그리고 6輪相의 세가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10輪이나 3輪이나 6輪은 모두 그 輪의 數에 의한 것이지만 그 輪數에 따라 각각 輪相은 저마다 특징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宿世所作의 善惡業에 대한 差別을 占察하고자 할 때에는 10輪을, 宿世集業의 久近所作 強弱大小 등에 대하여서 占察하고자 할 때에는 3輪을, 三世中の 受報에 관하여서 占察하려면 6輪을 각각 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세가지의 輪相에 쓰이는 木輪의 모양과 그 만드는 방법은 모두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③ 占察方法和 그 功果

#### ㄱ. 十輪相法

만약 宿世所作의 善惡業에 대한 것을 알아 보고자 할 때에는 木輪 10개를 만들어야 한다. 즉 十輪相法을 행하자면 먼저 10개의 木輪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十輪의 하나 하나에 十善의 이름을 한자 한자 쓰고 또 十惡의 하나 하나를 十善과 對比하여 十善을 쓴 쪽의 반대쪽에 쓴다. 다시 말해서 10개의 木輪마다 그 하나의 輪에 한쪽에는 十善의 이름 한자를 쓰고 또 한쪽에는 十惡의 이름 한자를 쓴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十輪에 十善과 十惡을 각각 쓰게 된다. 十善이란 곧 一切衆善(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善)의 根本이 되므로 세상의 다른 모든 善法을 能攝하며, 十惡이란 것도 역시 一切衆惡의 根本이므로 다른 모든 惡法을 能攝한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宿世所作의 善惡業에 대하여 觀察하려고 하는 木輪에 그 善과 惡의 根本이 되는 十善과 十惡을 각각 쓴다는 것이다.

이러한 十輪相을 占칠려고 한다면, 먼저 十方의 一切諸佛에 至心으로 禮拜하여 十方의 一切衆生으로 하여금 모두 빨리 佛을 親近供養하여 正法을 받게 되도록 願하고, 다음에는 十方의 一切法藏에 至心으로 敬禮하고 十方 一切衆生으로 하여금 빨리 受持 讀誦하도록 願하며, 또 다음에는 十方의 一切賢聖에 至心으로 禮敬하고 十方의 모든 衆生으로 하여금 빨리 親近供養하여 菩提心을 發하고 그 뜻이 退轉하지 않도록 願하며, 그 뒤에 至心으로 地藏菩薩摩訶薩에게 禮하고 十方의 모든 衆生으로 하여금 빨리 惡業 重罪와 諸障礙를 除滅시켜서 資生の 衆具를 빠짐없이 모두 充足하도록 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禮한 다음에 香華 등으로 供養을 修한다.

供養을 修할 때 一切 佛法僧 三寶를 仰念하고 이 香華 등으로 하여금 一切 諸佛刹土를 普熏하여 佛事を 施作하도록 願하며, 또 十方所有의 모든 갖가지 莊嚴供養具로 모든 衆生과 함께 供養을 奉獻할 것을 念하고, 모든 莊嚴의 供養具로써 一切衆生과 함께 奉獻하여 一切諸佛의 法身과 色身 및 舍利 形像浮圖 塔廟 一切佛事に 供養하고, 모든 法藏과 說法處에 供養하고, 모든 賢聖 僧衆에 供養하여, 이와 같이 供養을 修行한 모든 衆生이 六波羅密과 四無量心을 成就하고 一切法이 본래 寂靜하여 無生無滅하며 一味 平等한 것을 深知하고 畢竟은 圓滿하게 된다.

또 地藏菩薩에게 供養하고, 一心으로 ‘南無地藏菩薩摩訶薩’을 誦念 稱名한다. 이와 같이 稱名하여 千번을 채우고는, “地藏菩薩摩訶薩이시여 唯願하오니 大慈大悲로 護念하옵소서. 나 또는 一切衆生이 諸障을 速除하고 淨信을 增長하여 지금 觀察하고 稱名하는 바를 眞實로 相應되게 하옵소서.”라고 말한 뒤에, 손으로 木輪을 쥐고 淨物의 위에 다 던진다. 이렇게 하여 그 輪相을 점치는 것이다. 이에 木輪이 놓여진 상황에 의하여 善惡과 吉凶등의 業種을 관찰한다. 이리하여 宿世所作의 果報를 懺悔하고 善業을 專修하여 惡業을 對治하고 모든 障難을 除滅한다. 이것을 이룸하여 占察初輪相法(첫번째 輪相占察法)이라고 한다.

#### ㄴ. 三輪相法

過去 往昔集業의 久近所作과 強弱大小 差別을 占察하고자 한다면 나무로 3개의 輪을 만들어야 한다. 이 세개의 木輪 하나 하나에 각각 身·口·意의 글자를 쓴다. 그리고 木輪의 正中 一面에 한 획(一畫)을 굵직하고 길게 써서 가에까지 닿도록 하고, 제 2面에는 한획을 가늘고 짧게 써서 가에 닿지 않도록 하며, 제 3面에는 한면에 畫을 새기되 굵고 길게 하며, 제 4面에는 가늘고 얇게 획을 새긴다. 그 획이 長大한 것은 積善이 오래전부터 내려왔으므로 行業이 猛利하여 所作이 增上하는 것을 顯示한 것이며, 그 획이 細短한 것은 積善이 오래지 않고 修習이 鈍하여 所作이 微薄한 것을 顯示한 것이며, 그 새긴 것이 龜深한(굵고 깊은) 것은 惡을 익힌지가(習惡이) 오래이므로 所作이 增上하고 餘殃이 두터운 것을 顯示한 것이며, 그 새긴 것이 細淺한(가늘고 얇은) 것은 退善(善業의 修習을 중지함)이 오래되지 않아 惡法을 익힌 것이 얼마 안 되고 所作의 業이 增上에 이르지 않은 것을 顯示한 것이며 혹시 重惡이 비록 일어나더라도 일찌기 改悔할 수 있으므로 이를 小惡이라고 한다.

만약에 初輪相(十輪)의 占察에서 宿世所作의 業에 대한 善惡差別을 알았더라도 積習 久近所作의 業에 대한 強弱 大小는 알지 못하므로 第三輪相(三輪)을 占察하는 것이다. 이 第二輪相을 占察하려면, 먼저 初輪相(十輪相)중에 나타났던 業에 의하여야 하는데 그 業이 身에 속한 것이었으면 身輪相을 던지고, 만약에 口에 속한 것이면 口輪相을

던지고, 만약에意在 속한 것이면 意輪相을 던져서 占察한다.

未來世의 모든 衆生들이 生老病死를 度脫하고자 하여 비로소 發心하고 禪定과 無相 智慧를 修習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먼저 宿世에 所作한 惡業의 多少와 輕重을 觀察하여야 한다. 만일 惡業이 많고 두터운 자는 곧 바로 禪定이나 智慧를 修習할 수가 없으므로 (修習하여도 얻을 수가 없으므로) 반드시 먼저 懺悔의 法을 修習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宿世에 惡心을 익혀 그 기세가 매우 사나우므로 現世에 이르러 惡을 많이 짓고 重禁戒를 毀犯하기 때문에, 懺悔를 하여 淸淨히 하고 禪定과 智慧를 닦지 않으면 障礙가 많아서 所期의 목적인 解脫을 얻을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失心錯亂 또는 外邪의 所惱와 혹은 邪法을 받아들여 惡見을 增長하게 되는 등의 적지 않은 副作用이 다르게 됨으로 마땅히 懺悔法을 先修하여 戒根을 淸淨히 하고 宿世의 重罪를 微薄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懺悔法을 修行코자 하면 무엇보다도 靜處에 住하여 자기의 힘에 따라 一室에 佛事와 經法 綸幡 香華 등으로 莊嚴하여 供養을 修하고, 목욕하고 깨끗한 衣服으로 몸을 단정히 하여 이 室內에서 過去 七佛 및 五十三佛을 稱名하며 一心으로 敬禮하고, 따라서 十方三世의 諸佛과 一切法藏 및 모든 賢聖에 두루 禮拜하며 다음에 地藏菩薩을 稱名하고 禮한다. 이렇게 禮를 마치고는 一心으로 發願하고 懺悔하여 자기 스스로와 모든 衆生이 心本에 達하고 罪根을 永滅하여 모두가 正覺을 이루고 一切功德이 成就되기를 빌고 또 廻向願을 發한 뒤에, 靜室에 端坐하여 一心으로 地藏菩薩의 名號를 稱誦 또는 默念하며 懺悔法을 修한다. 이같이 修行하면 罪障이 輕微하고 그 마음이 猛利하여 意志가 굳센 사람은 7日 후에 곧 淸淨을 얻어 모든 障礙를 除滅하게 되며, 또는 2·7日을 지난 뒤에 또는 3·7日 혹은 7·7日을 지난 뒤에 淸淨을 얻으며, 過去 現在에 重罪가 增上한 자는 혹은 百日 혹은 2百日 또는 千日을 지난 뒤에 淸淨을 얻게 된다. 이와 같이 懺悔를 修行하면서 淸淨相을 얻었는가를 알고자 한다면 7日을 修行한 뒤에 날마다 이른 아침에 第二輪相(三輪相)을 모두 손안에 쥐고 세번 던져서 占察한다. 그러나 아무리 懺悔를 修하여도 至心이 되지 않으면 善相을 얻을 수 없고 또 설혹 善相을 얻었어도 至心이 안되면 戒를 얻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 ㉔. 六輪相法

만약에 三世중의 受報差別을 占察하려고 하면 나무로 여섯개의 輪을 다듬어야 한다. 이 여섯개의 木輪에다가 1에서 18에 이르기까지의 數字를 記入한다. 木輪 하나의 한 면에 한 數씩 3面に 기입하여 6輪에 18數를 차례로 기입하되 서로 錯亂되지 않게 한다. 이 數字들은 모두 한 數를 따라서 일어나는데 1을 本으로 삼는다. 이와 같은 數相은 一切衆生의 六根聚가 모두 如來藏의 自性淸淨心 一實境界에서 일어나므로 一實境界를 根本으로 삼는 것에 의한 것이다.

一實境界에 依하였으나 無明이 있어서 一法界를 了解하지 못하고 그릇된 念과 思惟로 妄境界를 나누어 集業 因緣을 分別取着하므로 眼耳鼻舌身意 등 六根이 생하고 이 六根에 대하여 밖으로 色聲香味觸法 등의 六塵이 있으며 이에 의하여 眼耳鼻舌身意 등의 六識이 일어나게 되어 18種의 受를 생한다.

未來世에 佛의 諸弟子가 三世中에 있어서의 所受果報를 똑똑히 알고자 한다면 應當히 이 第三輪相(六輪相)을 세번 던져서 占察할 것이다. 이 輪相을 세번 던져서 거기에 기입된 數가 나타난 것을 모두 合計하여 그 總數에 의해서 善惡을 결정하게 된다. 이와같이 관찰할 수 있는 三世의 果報와 善惡의 相에는 189種이 있다. 이것을 ‘百八十九種 善惡果報差別之相’<sup>11)</sup>이라고 한다. (이 189種 善惡果報相에 대하여 本經에서는 하나 하나

- 11) 一者 求上乘得不退, 二者 求果現當證, 三者 求中乘得不退, 四者 求下乘得不退, 五者 求神通得成就, 六者 修四梵得成就, 七者 修世禪得成就, 八者 所欲受得妙戒, 九者 所曾受得戒具, 十者 求上乘未住信, 十一者 求中乘未住信, 十二者 求下乘未住信, 十三者 所觀人爲善友, 十四者 隨所聞是正信, 十五者 所觀人爲惡友, 十六者 隨所聞非正教, 十七者 所觀人有實德, 十八者 所觀人無實德, 十九者 所觀義不着錯謬, 二十者 所觀義是錯謬, 二十一者 有所謂不錯謬, 二十二者 有所謂是錯謬, 二十三者 所修行不錯謬, 二十四者 所見聞是善相, 二十五者 有所證爲正實, 二十六者 有所學是錯謬, 二十七者 所見聞非善相, 二十八者 有所證非正法, 二十九者 有所獲邪神持, 三十者 所能說邪智辯, 三十一者 所支知非人力, 三十二者 應先習觀智道, 三十三者 應先習禪定道, 三十四者 觀所學無障礙, 三十五者 觀所學是所宜, 三十六者 觀所學非所宜, 三十七者 觀所學是宿習, 三十八者 觀所學非學習, 三十九者 觀所學學增長, 四十者 觀所學學方便少, 四十者 觀所學無進趣, 四十二者 求果現未得, 四十三者 求出家當得去, 四十四者 求聞法得教示, 四十五者 求經卷得讀誦, 四十六者 觀所作是魔事, 四十七者 觀所作事成就, 四十八者 觀所作事不成, 四十九者 求大富財盈滿, 五十者 求官位當得獲, 五十一者 求壽命得延年, 五十二者 求世仙當得獲, 五十三者 觀學問多所達, 五十四者 觀學問少所達, 五十五者 求師友得如意, 五十六者 求弟子得如意, 五十七者 求父母得如意, 五十八者 求男女得如意, 五十九者 求妻妾得如意, 六十者 求同伴得如意, 六十一者 觀所慮得和合, 六十二者 所觀人心懷志, 六十三者 求無恨得歡喜, 六十四者 求和合得如意, 六十五者 所觀人心歡喜, 六十六者 所思人得會見, 六十七者 所思人不復會, 六十八者 所謂喚得來集, 六十九者 所憎惡得離之, 七十者 所愛欲得近之, 七十一者 觀欲聚得和集, 七十二者 觀欲聚不和集, 七十三者 所謂喚不得來, 七十四者 所期人必當至, 七十五者 所期人住不來, 七十六者 所觀人得安吉, 七十七者 所觀人不安吉, 七十八者 所觀人已無身, 七十九者 所望見得觀之, 八十者 所求覓得見之, 八十一者 求所聞得吉語, 八十二者 所求見不如意, 八十三者 觀所疑即爲實, 八十四者 觀所疑爲不實, 八十五者 所觀人不和合, 八十六者 求佛事當得獲, 八十七者 求供具當得獲, 八十八者 求養生得如意, 八十九者 求養生少得獲, 九十者 有所求當得, 九十一者 有所求皆不得, 九十二者 有所求少得獲, 九十三者 有所求得如意, 九十四者 有所求速當得, 九十五者 有所求久當得, 九十六者 有所求而損失, 九十七者 有所求得吉利, 九十八者 有所求而受苦, 九十九者 觀所失求當得, 一百者 當所失永不得, 一百一者 觀所失自速得, 一百二者 求離厄得脫離, 一百三者 求離病得除愈, 一百四者 觀所去無障, 一百五者 觀所去有障, 一百六者 觀所住得安止, 一百七者 觀所住不得安, 一百八者 所向處得安快, 一百九者 所向處有厄難, 一百十者 所向處爲魔網, 一百十一者 所向處難開化, 一百十二者 所向處可開化, 一百十三者 所向處自獲利, 一百十四者 所遊路無惱害, 一百十五者 所遊路有惱害, 一百十六者 君民惡飢饉起, 一百十七者 君民惡多疾疫, 一百十八者 君民好國豐樂, 一百十九者 君無道國災亂, 一百二十者 君修得災亂滅, 一百二十一者 君行惡國將破, 一百二十二者 君修善國還立, 一百二十三者 觀所避得度難, 一百二十四者 觀所避不脫難, 一百二十五者 所住處象安隱, 一百二十六者 所住處有障難, 一百二十七者 所依聚象不安, 一百二十八者 閑靜處無語難, 一百二十九者 觀怪異無損害, 一百三十者 觀怪異有損害, 一百三十一者 觀怪異稍進安, 一百三十二者 觀所夢無損害, 一百三十三者 觀所夢有所損, 一百三十四者 觀所夢稍進安, 一百三十五者 觀所夢爲吉利, 一百三十六者 觀睡亂速得離, 一百三十七者 觀睡亂漸得離, 一百三十八者 觀睡亂不能離, 一百三十九者 觀睡亂一心離, 一百四十者 觀所難速得脫, 一百四十一者 觀所難久得脫, 一百四十二者 觀所難受衰惱, 一百四十三者 觀所難稍進脫, 一百四十四者 觀所難命當盡, 一百四十五者 觀所患大不誤, 一百四十六者 觀所患非人惱, 一百四十七者 觀所患合非人, 一百四十八者 觀所患可療治, 一百四十九者 觀所患難療治, 一百五十者 觀所患稍進差, 一百五十一者 觀所患久長苦, 一百五十二者 觀所患自當差, 一百五十三者 所向醫堪能治, 一百五十四者 觀所療是對治, 一百五十五者 所服藥當得力, 一百五十六者 觀所患得除愈, 一百五十七者 所向醫不能治, 一百五十八者 觀所療非對治, 一百五十九者 所服藥不得力, 一百六十者 觀所患命當盡, 一百六十一者 從地獄道中來, 一百六十二者 從畜生道中來, 一百六十三者 從餓鬼道中來, 一百六十四者 從阿修羅道中來, 一百六十五者 從人道中來, 一百六十六者 從天道中來, 一百六十七者 從在家中來, 一百六十八者 從出家中來, 一百六十九者 曾值佛供養來, 一百七十者 曾親供養賢聖來, 一百七十一者 曾得聞深法來, 一百七十二者 捨身已入地獄, 一百七十三者 捨身已作畜生, 一百七十四者 捨身已作餓鬼, 一百七十五者 捨身已作阿修羅, 一百七十六者 捨身已生人道, 一百七十七者 捨身已爲人王, 一百七十八者 捨身已生天道, 一百七十九者 捨身已爲天王, 一百八十者 捨身已聞深法, 一百八十一者 捨身已得出家, 一百八十二者 捨身已值聖僧, 一百八十三者 捨身已生兜率天, 一百八十四者 捨身已生淨佛土, 一百八十五者 捨身已得見佛, 一百八十六者 捨身已住下乘, 一百八十七者 捨身已住中乘, 一百八十八者 捨身已獲果證, 一百八十九者 捨身已住上乘.
- (高麗大藏經 第13 p. 682~684. 大正新修藏經 第17卷 p. 905~906.)

밝혀 놓았는데, 여기서는 복잡을 피하여 생략하고 註로 돌려서 參考에 제공코자 한다.)

이와 같은 占法은 마음을 따라서 觀察한 것을 주로 念하는 일이므로 그 數가, 뜻에 계합하여 相當한다면 조금도 어그러짐이 없는 것이다. 만일 木輪을 던져서 합한 數가 마음에 觀한 主念之事와 相當하지 않으면 至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虛謬라고 한다. 이 輪相을 占察하려면은 응당 自心을 헤아려 관찰하고 世間の 名利를 貪하지 않고 內意를 淸淨하게 한 연후에 앞에서 본 輪相法(十輪 및 三輪相法)에서와 같이 歸敬하고 供養을 修行하여 至心으로 發願하고 占察한다. 만약 內心이 淸淨하지 않으면 설령 占察하여도 相當하지 않고 다만 虛謬일 따름이다. 또 만약에 未來世의 衆生들이 모든 占에서 吉善을 거두지 못하고 求하는 바를 얻지 못하여 갖가지의 憂慮로 逼惱 怖懼할 때에는 마땅히 晝夜로 부지런히 地藏菩薩의 名字를 誦念하여 至心으로 되었을 때 占察하면 곧 吉할 것이며 求하는 바를 모두 얻고 衰惱를 떠나게 될 것이라<sup>12)</sup> 하였다.

## 2. 經의 傳譯 및 그 眞僞問題

高麗大藏經을 비롯한 諸藏經에 收錄되어 있는 本 占察經에는 그 첫머리에 ‘天竺三藏 菩提燈 譯’이라고 분명히 기록하여 있다. 이에 의하여 本經의 譯者가 天竺三藏 菩提燈(登)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隋 外國沙門’이란 註記가 있는 것으로 보아 隋나라 때에 번역되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이 占察經의 譯者와 그 번역 年代에 대하여 다소 문제가 있다. 이 經이 언제 번역되고 譯者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는 과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이 經 자체의 眞僞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꽤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占察經은 일찍부터 中國의 藏經目錄에 보이지 않았던 經이었는데,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것은 아마 隋의 法經等撰인 衆經目錄(法經錄)과 翻經沙門及 學士等撰인 衆經目錄(彥棕錄) 및 費長房撰인 歷代三寶紀(長房錄)등일 것이다. 中國의 諸經錄에서 보여지고 있는 占察經에 관한 문제의 記錄들을 대충 살펴보기로 한다.

法經錄의 卷第2 衆經疑惑 5<sup>13)</sup>에는, “……文理複雜 眞僞未分 事須更詳 且附疑錄.”이라는 20部 21經 39卷중에 占察善惡業報經 2卷이 들어있다. 즉 이 占察經은 眞僞를 가릴 수 없는 經중의 하나이므로 疑惑條에 附錄되었음을 알 수 있다.

彥棕錄의 卷第4 五分 疑僞<sup>14)</sup>에는 ‘名雖似正義涉人造’라는 分註가 붙은 209部 491卷중에 占察善惡業報經 2卷이 들어있다. 이 또한 占察經을 疑僞의 經으로 취급하였음을

12) 高麗大藏經 第13 p. 658~664. 大正 新修大藏經 第17 卷 p. 902~906.

13) 法經等撰衆經目錄 卷第2 衆經疑惑 5 (大正新修大藏經 第55卷 p. 126).

14) 隨翻經沙門及學士等撰 衆經目錄 卷第4 (大正新修藏經 第55卷 p. 172).

15) 費長房撰 歷代三寶紀 卷第12 (大正新修藏經 第49卷 p. 106).

알 수 있다.

長房錄 즉 歷代三寶記 卷第12<sup>16)</sup>에는, “占察經 二卷 右一部 二卷 檢群錄無目 而經首題云 菩提登在外國譯 似近代出…….”라고 하여, 占察經이 여러 經錄을 살펴봐도 그 目錄이 없고 다만 經의 首題에 菩提登이 外國에서 번역하였다고 있으며, 近代(隋代)에 나온 것인 듯 하다고 하였다.

大唐內典錄 卷第5 隋朝傳譯佛經錄<sup>17)</sup>에는, “占察經 二卷, 右一部 檢錄無目 經首題云 菩提登在外國譯…….”이라하여 앞에서 본 長房錄의 것을 그대로 수록하고 있다. 그리고 同錄 卷第10 歷代所出疑僞經論錄<sup>18)</sup>에는 占察經이, “右諸僞經論 人間經藏往往有之 其本尚多 待見更錄.”라고 한 諸經論 가운데에 들어 있어서 僞經으로 취급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大周刊定衆經目錄 卷第1<sup>18)</sup>에, “占察經 一部 二卷 右 外國沙門菩提登譯 天册萬歲元年10月 24日 奉勅編行.”이라고 있어서 占察經이 則天武後의 天册萬歲元年(695)에 비로소 眞經으로 編入되었음을 보게 된다.

開元釋教錄 卷第7<sup>19)</sup>에는, “占察善惡業報經 二卷 云出六根聚經 亦云大乘實義經 右 一部 二卷 其本見在 沙門 菩提登外國人也 不知何代譯占察經一部 長房錄…….”이라 하여 長房錄을 引用한 다음에, “今謂不然 豈得以己管窺而不許有博見之士耶 法門八萬理乃多途 自非金口所宣何得顯斯奧旨 大唐天后天册萬歲元年 勅東都佛授記寺沙門明全等 刊定一切經錄以編入正經訖 後諸覽者幸無惑焉.”라고 하여 있다. 여기서 開元釋教錄의 撰者 智昇도 증진의 經錄들에서 占察經을 僞經으로 취급하고 있었는데에 대하여 ‘今謂不然……’이라 하여 佛陀의 金口所說이 아니면 이러한 奧旨를 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天册萬歲元년에 正經으로 編入된 것을 밝혀서 그 당연함을 ‘後諸覽者 幸無惑焉’이라 재강조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 이후의 諸經藏에서는 모두 占察經을 眞經으로 入藏하였다.

대충 이상과 같은 經錄들을 통해서 우리는 占察經이 종래 中國에서 僞經이라는 論難을 받고 있었으나 唐의 則天武後 때에 비로소 眞經으로 入藏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상의 經錄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占察經의 譯者는 오직 長房錄에 의해서만 菩提登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다시 말해서 占察經의 譯主가 菩提登이었다는 것을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는 곳이 長房錄이며, 여기에 의해서 그 譯主가 누구라는 것을

16) 大唐內典錄 卷第5 隋朝傳譯佛經錄 第17(大正藏經 第55卷 p. 279).

17) 上同 卷第10 歷代所出疑僞經論錄 第8 (上同 p. 335~336).

18) 大周刊定衆經目錄 卷第1 大乘單譯經目(上同 p. 379).

19) 開元釋教錄 第7 (上同 p. 551).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長房錄 이전에도 占察經의 譯主가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그 후의 經錄에도 오직 長房錄을 引用하여 譯主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長房錄만이 譯主의 이름을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본 歷代三寶紀<sup>20)</sup>에 의하면, 隋의 文帝 때에 廣州와 靑州地方에서 僧侶 및 居士가 占察經에 의한 것이라 하여 善과 惡의 글자를 쓴 皮帖子 2枚를 던져서 吉凶을 占치는 등 塔撲의 懺法을 행하여 男女가 群集合雜 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廣州의 司馬 郭詒가 開皇 13년(593)에 上奏하였으므로, 文帝는 法經 등 沙門으로 占察經의 眞僞를 勘定하게 하였다. 이에 法經등은 ‘諸經目錄에 살펴보아도 此經의 名 및 譯處가 없으며, 또 塔懺의 法은 다른 諸經과 다르므로 依行할만한 것이 못된다’는 뜻을 아뢰었으므로, 文帝는 그 流行을 금하게 하였다는 것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高麗의 高僧 一然是 三國遺事에서 그 不當함을 언급하고 있다.<sup>21)</sup>

다시 말한다면, 이 占察經은 隋의 開皇 13년(593) 이후에 僞經이나 眞經이나 하는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후 唐의 天册萬歲元年(695)에 大周刊定衆經目錄에 正藏으로 編入됨으로써 眞經으로 결정된 것이었다. 그후 出몰 諸藏經에 眞經으로 入藏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學者들은 언제나 이 經을 僞經으로 보아온 것 같다.

이 占察經을 僞經이라고 보는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우선 그 譯主 菩提登이란 인물에 대한 傳記가 없고 未詳인 점과, 또 譯經의 時와 處를 알 수 없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占察經 上卷 所說의 木輪相 占察法은 中國에서 새로이 考案된 것 같다는 점이다. 어쨌든 하나의 經典이 佛陀의 眞意에 어그러지지 않고 佛陀의 참된 大義에 제한된다면 그 經의 內容을 佛說이라고 보는 것이 歷史를 통해서 볼 수 있는 佛敎人들의 태도였고, 佛子들의 共通의 經觀이며 慣例였기 때문에, 이 占察經도 佛說로 보아 眞經으로 入藏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木輪相 占察法이 아무리 後世의 造作이라 하더라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衆生을 救濟하는 佛陀의 方便說에 조금도 違背됨이 없다면, 또 많은 衆生이 利益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佛陀가 說示한 敎化方便이라고 보아도 大過는 없을 것이라 본다. 그러나 그 內容이나 佛說의 眞義 문제를 떠나서 占察經이 成立된 出現年代를 중심으로 해서 본다면 이 經은 말할 것도 없이 佛陀 在世時의 所說이 아니며, 또 印度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中國의인

20) 註 15(占察經條에).

21) 三國遺事 義解 第5 眞表傳箋에 작,

“……今試論之 靑州居士等塔撲等事……佛所預防 正爲此爾 若曰占察經無譯人時處 爲可疑也 是亦擔癩棄金也 何則 詳彼經文 乃悉壇深密 洗滌穢瑕激昂懶夫者 莫如茲典 故亦名大乘懺 又云出六根聚中 開元貞元二釋教錄中 編入正藏 雖外乎性宗 其相敎大乘殆亦優矣 豈與塔撲二懺 同日而語哉 如舍利佛問經 佛告長者子 鄒若多羅曰 汝可七日七夜悔汝先罪 皆使清淨 多羅奉敎 日夜懇惻 ……據此 則與占察經擲輪得相之事 奚以異哉 乃知表公懺懺得簡聞法見佛 可謂不誣 況此經若僞妄 則慈氏何以親授表師 又此經如可禁 舍利問經亦可禁乎 琮輩可謂搜金不見人 讀者詳焉。”이라 하여 있다.

經이라고 해야 옳을 것 같다.

所依經典으로서의 占察經을 대충이나마 살펴 봄에 있어서 끝으로 그 註釋을 言及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떠한 經論이라도 그것이 持誦되고 研究되었다면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註釋書가 있기 마련이라고 하겠다. 占察經에도 例外는 아니므로 註釋書가 있다. 그래서 別項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이나, 現存하는 註釋書가 극히 稀少할뿐 아니라 本論에서 研究하려는 新羅 眞表의 占察法會에 관련시켜서 볼 수 있는 註釋은 통 볼 수 없기 때문에 別項으로 취급하지 않고, 末尾에다 잠깐 附言할 따름이다. 占察經의 註釋이 보이는 것은 新羅(眞表)보다 훨씬 後代인 明나라 때의 藕益 智旭(1599~1655)이 撰述한, ‘占察善惡業報經 玄義 一卷’과 ‘占察善惡業報經 疏 二卷’이며, 이밖에 또 그는 占察善惡業報經 行法 一卷’과 ‘讚禮地藏菩薩懺願儀 一卷’의 占察行法을 지었다.

### Ⅲ. 眞表의 占察敎法

#### 1. 眞表의 行蹟

##### (1) 現存 諸傳

眞表의 行蹟을 전하는 傳記史料는 비교적 數種이 現存하는 편이다. 이미 앞에서(註1,) 본 三國遺事 卷4 義解 第5 ‘眞表傳簡’과 同 ‘關東楓岳鉢淵藪石記’와 이밖에,

宋 高僧 傳 卷第14(明律編 第4之1)의 ‘百濟國 金山寺 眞表傳’<sup>22)</sup>

神僧傳 卷第7 ‘眞表’.<sup>23)</sup>

新修科分六學僧傳(釋曇暈 述) ‘眞表傳’<sup>24)</sup>

등이 있다.

眞表는 景德王 代(742~764)의 高僧으로 그 德化가 一世에 떨치기는 하였으나 오늘날 現存하는 文獻에서 그의 著述 一片을 볼 수 없고 또 당시 新羅의 僧俗間에 羨望의 이었던 唐에의 遊學(求法)도 하였다는 흔적이 안 보인다. 다시 말해서 眞表는 入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元曉처럼 外國(中國 및 日本)에 많은 영향을 끼친 義解·著述의 大家도 아니었으며, 慈藏이나 義湘처럼 中國에 건너가서 이름을 떨친 일도 없었다. 그러한 眞表인데도 어느 大德과는 달리 中國이나 日本人에 의한 僧傳에 收錄되어 있다는 것이다. 眞表의 傳記가 宋高僧傳이나 神僧傳 또는 新修科分六學僧傳 같은 데에 들어 있다는 것이 그리 대단한 일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三國時代나 新羅時代에, 우리

22) 大正新修大藏經 第50卷 p. 793~794.

23) 上 同 p. 997~998.

24) (卍續 乙 6. 3~5) 朝鮮佛敎史料 8(權相老 抄輯) p. 69.

高僧들의 行狀이 매우 稀少하게 傳해오는 歷史事實에 있어서, 三國遺事에도 收錄이 되어 있는데 또 外國의 僧傳 數處에 收錄되어 있다는 것을 미루어, 眞表의 行化와 그 位置가 당시 新羅에 끼친 영향이 대단하였으리라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國內에서 남긴 著述도 없고 外國에 간 일도 없어서 外國에까지 멀리 그의 이름이 傳하여질 이유가 있을 것 같지도 않은데 비교적 數處의 外國 僧傳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선 眞表에 대한 現存의 諸記錄을 하나 하나 들어서 그 傳하는 바를 대충 간추려 보고, 다음에 眞表의 行蹟을 全般的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① 眞表傳簡(三國遺事)

眞表는 完山州萬頃縣人으로 父는 眞乃末이고 母는 吉寶娘이며 姓은 井氏였다. 나이 12세에 金山寺 崇濟法師의 講下로 가서 머리를 깎고 배우게 되었다. 崇濟法師가 어느 날,

“나는 일찍 唐으로 가서 善道三藏<sup>25)</sup>에게서 배우고, 그 뒤에 五臺山으로 들어가 文殊菩薩의 感應을 입어 직접 文殊菩薩에게 五戒를 받았다.”

고 하였으므로, 眞表는,

“얼마쯤 勤修하면 戒를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스승에게 물으니 崇濟는,

“精誠이 至極하면 一年 못 가서 얻을 수 있겠지.”

하였다. 이에 眞表는 그곳을 떠나 名岳을 두루 찾아 다니다가 仙溪山 不思議庵에 자리를 잡고 머물러서 亡身懺으로 三業을 淸淨히 하는 修行을 하였다.

여기서 眞表는 처음에 7日を 期限하고 맹렬히 懺悔法을 닦았다. 그리고 다시 7日を 정하고 修行하였는데, 五輪 즉 五體(머리와 두 팔, 두 다리 곧 온몸)를 바위돌 위에 던지듯 절을 하여 懺悔를 修하였으므로 무릎과 팔굽이 깨어져서 흐르는 피가 바위에 비오듯 쏟아졌다. 眞表는 만약에 聖應이 없다면 몸을 버릴 결심을 굳게 하였다. 이리하여 두번째의 7일이 끝나는 날 地藏菩薩로부터 淨戒를 직접 받았다. 이때가 開元 28년 庚辰 즉 孝成王 4년(740) 3月 15日 辰時였는데 眞表의 나이 23세였다.

그러나 眞表의 뜻은 慈氏(彌勒菩薩)에게서 戒를 親히 받는데 있었으므로 修行을 중지하지 않고 靈山寺(一名 邊山 또는 楞伽山)로 옮겨가서 다시 계속하였다. 그는 처음과 다름없이 맹렬하게 懺悔를 修하였다. 그 결과 彌勒菩薩의 感應으로 占察經 2卷과 證果簡子 189介를 받았다. 그때 彌勒은 특히 證果簡子를 주면서 眞表에게,

“이 189개(簡子)중에서 第8簡子는 新得妙戒에 비유되고 第9簡子는 增得具戒에 비유되는데, 이 두 簡子는 나의 손가락 뼈이며, 나머지 簡子는 모두 沈檀木으로 만든 것으

25) 唐의 悟眞寺 善道(613~681)는 淨土宗의 高僧이다. 같은 淨土宗 高僧으로 662년에 寂하였다는 光明寺 善導와 同一人으로 혼동되는 경우가 있다

로 諸煩惱에 비유된다. 너는 이것으로 세상에 傳法하여 사람을 濟度하는 津筏(方便)로 삼으라.”

고 하였다.

이와 같이 眞表는 聖苑을 받고 金山寺에 와서 머물며 해마다 開壇하여 法施를 크게 베풀었다. 그뒤 眞表는 여러 곳을 遊化하고 阿瑟羅州(溟州)에 이르렀을 때 島嶼間에 魚鼈이 배를 지어 다리를 놓아 水中으로 迎入하므로 들어가서 法을 講하고 戒를 주었다. 이 때가 天寶 11年 壬辰 곧 景德王 11年(752) 2月 15일이었다. 景德王이 그 소문을 듣고 眞表를 宮中으로 맞아들여 菩薩戒를 받고 租 7萬 7千石을 嚙施하였으며, 王室宗親이 모두 戒品을 받고 絹 5百端과 黃金 50兩을 시주하였으므로 그는 이것을 모두 받았다. 그리하여 眞表는 그 施物을 諸山에 나누어 佛事를 廣興하게 하였다. 그의 骨石이 지금(高麗 一然 당시) 鉢淵寺에 있는데 이곳은 그가 海族을 위하여 演戒한 곳이다. (以下로 永深을 비롯한 得法弟子들과 그리고 占察法の 眞妄에 대한 中國측의 故事 및 그에 대한 撰者 一然의 考證說明 등이 붙어 있다.)

② 關東楓岳鉢淵藏石記<sup>26)</sup> (三國遺事)

眞表律師는 全州 碧骨郡 都那山村 大井里 사람으로 12세에 出家하였다. 그는 처음 出家에 뜻을 두고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아 金山藏(寺)로 가서 順濟法師에게 得度되었다. 順濟는 眞表에게 沙彌戒法을 주고, 供養次第秘法 1卷과 占察善惡業報經 2卷을 傳敎하면서,

“너는 이 戒法을 지니고 彌勒과 地藏의 兩聖앞에서 懺悔를 懇求하여 親히 戒法을 받아 세상에 流傳하라.”

고 하였다. 이에 眞表는 스승(順濟)의 가르침을 받들고 물러나와 名山을 두루 돌아다녔다. 그의 나이 27세되던 上元 元年 庚子(景德王 19년·760)에 쌀 20斗를 찌서 말려 가지고 保安縣으로 가서 邊山 不思議房으로 들어갔다. 여기서 그는 彌勒像 앞에서 戒法을 勤求하였으나 3년이 되어도 授記를 얻지 못하였다. 이에 憤憤한 그는 바위 아래로 몸을 던졌다. 이 때 홀연 青衣童子가 손으로 받들어서 바위 위에 올려 주었다.

眞表는 다시 뜻을 세워, 3·7日을 期約하고 밤 낮으로 돌락 위에서 懺悔를 勤修하였다. 이렇게 하여 3日째 되는 날에는 지독한 精進으로 팔이 부러져 떨어졌다. 그래도 계속하여 懺悔를 修한지 7日째 되는 밤에는 地藏菩薩이 와서 加護하여 주었으므로 부

26) 이 關東楓岳鉢淵藏石記는 刪取抄錄者인 無極이 附記한 바와 같이 承安 4년 己未 즉 神宗2년(1199)에 寺主 瑩峯이 撰한 鉢淵藏 眞表律師骨藏立石碑銘의 記錄을 刪取하여 옮긴 것이다.

眞表律師骨藏石碑銘은 朝鮮金石總覽上 (p. 426~430)에 있는데 泐字가 심하다.

無極은 一然의 弟子인 賓蓬國師 混岳의 自號이다. 그는 그의 스승 一然의 撰인 三國遺事 所載의 眞表傳과 이 鉢淵石記가 서로 다른 점이 있으므로 後人의 參考를 위하여 抄錄해서 附記한 것이다. 이 밖에도 無極은 遺事의 뒷군데에 參考資料를 附記하여 있다.

러진 팔이 나아서 전과 같이 되었으며, 또 地藏菩薩로부터 袈裟와 鉢盂를 받았다. 이에 힘을 얻은 眞表는 더욱 精進하여 3·7일을 채웠다. 精進한지 3·7일 즉 21일을 채우게 될 날 眞表는 天眼을 얻어서 彌勒菩薩과 兜率天衆이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때 地藏과 彌勒이 眞表의 머리를 어루만지면서,

“이처럼 戒를 求하여 身命을 아끼지 않고 지극히 懺悔하니 훌륭한 大丈夫로구나.” 하고, 地藏은 眞表에게 戒本을 주었으며, 彌勒은 九者和 八者라는 題가 쓰인 두개의 牋 즉 簡子(籤子, 점대같은 것)를 주었다. 彌勒은 특히 眞表에게,

“이 두개의 簡子是 나의 손가락 뼈인데, 이것은 始覺과 本覺에 비유한 것으로서 九者는 法爾이며 八者는 新熏成佛種子이다. 너는 이 몸을 버리고(죽은 뒤에) 大國王의 몸을 받았다가 뒤에 兜率天에 나게 될 것이다.”

하고는, 彌勒과 地藏 두菩薩은 간곳이 없었다. 이때가 景德王 21年 壬寅(762) 4月 27日이었다.

眞表는 教法을 받고 나서 金山寺를 重創하기 위하여 산을 내려오다가 大淵津에서 龍王이 나타나 바치는 玉과 袈裟를 받았으며, 그 龍王이 거느린 8萬 권속의 侍衛를 받아 金山寺로 와서 重創을 이루었다. 이때 또 眞表는 兜率天에서 내려온 彌勒으로부터 戒法을 받았다. 그는 彌勒丈六像을 鑄成하고 兜率來儀相을 그려서 모셨다.

그 뒤 眞表는 金山寺를 떠나 俗離山으로 향하였다. 路中에서 만난 牛乘車를 타고 가던 사람과 소들을 濟度하고, 俗離山에서 吉祥草가 난 것을 보고 그곳에 표를 해놓은 뒤에 溟州로 향하였다. 이때 그는 溟州 海邊에서 그를 향해 바다로부터 물려나온 魚鼈떼를 위하여 戒法을 湄念하였으며, 그 길로 金剛山에 들어가 鉢淵菴을 始創하였다. 여기서 占察法會를 열고 7년을 머물면서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濟度하였다.

眞表는 鉢淵寺를 떠나서 다시 不思議房으로 갔다가, 고향으로 가서 아버지를 뵈었다. 그리고 永深·融宗·佛陀 등 大德들이 그를 찾아와서 戒法을 懇求하므로 그들을 弟子로 삼고, 衣鉢과 供養次第秘法과 占察經 및 189牋 그리고 彌勒眞牋 2簡子를 傳하여 教法을 付囑하였다. 그리고 眞表는 그 아버지와 함께 다시 鉢淵寺로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道業을 同修하다가 終孝하였으며, 그는 나중에 遷化할 때에 鉢淵寺의 東쪽 大岩위에서 示滅하였다. 弟子들이 그 眞體를 움적이지 않고 그대로 둔채 供養하였는데, 나중에 그 骸骨이 바위 밑으로 떨어짐에 그곳에 흙으로 덮어 무덤으로 삼았다. (그리고 거기에서 소나무가 자라났다는 것과 致敬者가 遺骨을 좇어가므로 高麗 明宗末 때 聖骨이 壙滅될 것을 염려한 寺主 瑩峯이 뼈를 좇어모아 大岩上 松下에 立石하여 安骨하였다는 것과, 끝으로 遺事의 撰者一然의 門人 無極이 遺事所載의 眞表傳簡에 있는 事蹟과 서로 다른 데가 있으므로 後人들을 위하여 참고로 刪取抄錄했다는 附記가 있다.)

### ③ 百濟國 金山寺 眞表傳(宋高僧傳)

釋 眞表는 百濟人이다.<sup>27)</sup> 그의 집은 金山에서 대대로 사냥을 하며 살았다. 眞表도 날새고 민첩하였으며 활을 특히 잘 쏘았다. 開元(713~742, 聖德王 12年~景德王 元年) 중의 어느 해 眞表는 사냥을 나가서 짐승을 쫓다가 잠시 밭두둑에서 쉬었다. 그때 그는 개구리가 많은 것을 보고는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개구리를 잡아 껌어 한 껌미를 만들어 나중에 가져가기 위하여 물속에 담가 두었는데, 사냥을 하는 사이 다른 길로 해서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개구리 껌미는 전혀 잊어버리고 말았다.

이듬해 봄 眞表는 사냥을 나갔다가 물속에서 우는 개구리 소리를 듣고 들여다 보니, 물속에는 한 30마리쯤 되는 개구리가 껌어매인 채 아직도 살아서 울고 있는 것이었다. 그때야 그는 지난해 30여마리의 개구리를 잡아서 껌미를 만들어 물속에 두었던 생각이 났다. 자기는 그뒤 잊어버리고 1년을 지냈는데, 개구리는 배와 입을 껌어 매인채 그동안 살아 있었던 것이다. 그는 크게 탄식하고 자책하며 곧 껌미를 풀어서 개구리를 놓아 주었다. 그로부터 그는 出家에 뜻을 두고 끝내 깊은 산으로 들어가 스스로 칼로써 머리를 깎았다.

그 뒤 眞表는 ‘彌勒菩薩로부터 친히 戒法을 받을 때까지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誓願을 세우고, 온몸을 땅에 부딪쳐 지극히 懺悔를 修行하여 간절히 戒法을 求하였다. 그는 밤 낮으로 더욱 힘써 잠시도 쉬지 않았는데, 7日째의 밤이 새는 이른 아침에 地藏菩薩이 나타나 眞表를 격려하고 깨우쳐서 크게 힘이 되게 하였다. 이에 眞表는 더욱 힘을 얻어 勇猛精進하여 두번째 7日을 채우게 되었는데, 무섭게 생긴 大鬼가 나타나서 그를 밀어 바위 밑으로 떨어뜨렸으나 그의 몸은 다친데가 없었다. 그는 石壇 위로 다시 기어 올라가서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더욱 힘써서 세번째의 7日을 채우게 되었다. 그날 새벽에 吉祥鳥가, ‘菩薩이 오신다.’고 우는 소리가 나므로 보니, 兜率天主(彌勒)가 威儀를 갖추어 내려오고 있었다. 眞表의 곁으로 다가온 彌勒은 그의 정수리를 어루만지면서,

“훌륭한 大大夫로다. 이처럼 지극히 戒를 求하여 끝내 물러서지 않으므로 法을 주겠다.”

하고는 三法衣와 瓦鉢을 주고 眞表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으며, 또 무릎 아래로부터 牙도 아니고 玉도 아닌 두개의 籤子를 내어 주었다. 그 籤의 하나에는 九者라 題하여 있고 하나에는 八者라 題하여 있는데, 이것을 주면서 彌勒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戒를 求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罪를 懺悔하여야 한다. 여기(2籤)에 다시 108籤을 더하여 籤에 108煩惱의 이름을 써서 戒를 求하려는 사람이 혹은 90日이나 40日이나 혹은 3·7日을 行懺하여 지극히 精進하고 그 期限이 다 차는 날 九와 八의 二籤을

27) 眞表가 統一 직후의 湖南 즉 百濟故土의 사람이라 해서 百濟人이라한 것 같다. 그러므로 이것은 百濟 때의 百濟人이란 것이 아니고, 新羅 때의 百濟당(故土) 사람이란 것으로 보아야 한다.

108籤과 합하여 佛前에서 空中을 바라고 던져 그籤이 땅에 떨어진 것으로서 罪가 滅하였는지 滅하지 않았는지 알아본다. 만약 108籤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오직 八·九 2籤만이 壇의 한 가운데에서 있으면 곧 上品戒를 얻게 되며, 만약 많은籤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 두어개의籤이 八·九籤에 부딪혀 있으면 그籤이 무슨 煩惱名인가를 보고 다시 懺悔한 뒤에 그 煩惱籤과 八·九者를 함께 던져서 그 煩惱籤이 떨어져가면 中品戒라 하고 만약 그것들이 八·九者를 덮게되면 곧 罪가 滅하지 않은 것이므로 戒를 얻지 못한다. 그러므로 다시 懺悔를 더한지 90日이 지나서 얻으면 下品戒가 된다.” 하고 彌勒은 다시,

“八者是 新熏이며, 九者是 本有이다.”<sup>28)</sup>

라고 付囑한 뒤 하늘로 돌아갔다.

眞表는 곧 彌勒에게서 받은 天衣와 天鉢을 가지고 山을 내려왔다. 날짐승 길짐승이 달려와 그의 걸음 앞에 엎드렸으며, 또 村落과 聚邑의 男女 백성들이,

“菩薩이 산에서 내려왔는데 어찌 영접하지 않는가.”

라고 空中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 나와서, 어떤 자는 머리를 풀어 진흙을 덮고 어떤 이는 옷을 벗어 길에 깔고 또 많은 사람이 담과 모포의 자리를 땅위에 펼쳐 그의 가는 길에 진흙과 먼지가 묻지 않도록 정성을 들여 환영하였다. 그는 간곡한 人情들을 저버릴 수 없어서 일일이 밟아서 갔지만 屠家의 女子가 고기를 팔아서 산 疊布만은 밟지 않고 피해 갔다.

그로부터 항상 두마리의 범이 眞表의 左右를 따라 다녔는데, 眞表는 그 범을 시켜서 좋은 修行處를 찾게 하여 자리를 잡았다. 곧 이어 사방에서 많은 信士들이 모여 와서 함께 伽藍을 造成하니 이름을 金山寺라 하였다. 이로부터 해마다 戒를 求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고 많았다. (끝으로 影堂안에 道具가 있다고 하여 있다.)

#### ④ 眞表(神僧傳)

眞表의 出家前에 그 動機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 개구리 이야기가 빠져있을 뿐, 深山으로 들어가 머리를 깎았다는 것으로부터 그 內容 전부가, 앞에서 본 宋高僧傳 所載의 眞表傳과 똑 같다. 앞 부분의 개구리 이야기와 末尾의 金山寺를 지었다는 사실, 다음에 있는(戒를 求하는 사람이 해마다 많고, 影堂에 道具가 있었다는) 부분만이 없을 뿐이지, 本文의 내용은 宋高僧傳의 것과 글자도 틀리지 않는다. 이로 보아 神僧傳 撰者가 宋高僧傳에서 그대로 옮긴 것 같다.

#### ⑤ 眞表傳(新修科分 六學僧傳)

이것도 宋高僧傳의 眞表傳과 內容이 같다. 文章에 있어서 字句의 添削이 조금 있을 뿐 그 內容의 줄거리는 하나도 다른 것 없이 똑 같다. 이것은 編者가 宋高僧傳에 있는

28) 新修科分六學僧傳 所載의 眞表傳에는 ‘九者 本習也’라 있다.

것을 옮기면서 理解하기 쉬운 文章으로 만든 것 같다.

## (2) 諸傳을 通해 본 全般的 概要

이상에서 우리는 現存하는 5種의 眞表傳을 대충 보았다. 여기서 宋高僧傳과 禪僧傳 및 六學僧傳의 세가지 眞表傳은 그 내용이 같으므로 하나의 傳記로 처서, 그중에서 가장 오래된 宋高僧傳의 것을 그 대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실상에 있어서는 眞表傳이 3種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眞表傳簡(一然撰)과 關東楓岳鉢淵 藪石記(瑩岑撰)와 百濟 金山寺 眞表傳(宋高僧傳 所載)의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들 세가지는 각각 그 전하는 바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그 다른 점과 같은 점을 대강 비교해 본 다음에 이들 傳記를 통하여 볼 수 있는 眞表의 行狀을 정리해 볼까 한다.

### ① 그 年代

먼저 眞表가 언제쯤의 사람이며, 어느 해 出生하고 어느해 入寂하였는지를 보아야겠다.

宋高僧傳의 眞表傳에 의하면 眞表가 開元(713~742)중에 사냥을 하다가 개구리를 잡아 꿩미를 꿩었으며, 그로 인하여 出家하였다고 했다. 開元年間은 新羅 聖德王 12年에서 景德王 元年 사이이다. 그렇다면 이 사이에 眞表가 出家한 것이 되니, 그가 出家沙門이 되어 衆生을 濟度하면서 활동한 것은 景德王 때(742~765) 또는 그보다 조금 후인 惠恭王 때(765~780)까지 쯤이라고 할 것이다.

眞表傳簡(三國遺事)에 의하면, 開元 28年 庚辰 즉 孝成王 4年(740)이 眞表의 23세 때였다고 있으며, 또 眞表가 地藏·彌勒 兩聖에게 感應을 입고 聖勅을 받은 뒤에 金山寺에 法을 퍼다가 溟州의 島嶼間에서 고기매들을 위하여 水中에 들어가 講法授戒한 때가 天寶 11年 壬辰 즉 景德王 11年(752)이며, 이 소문을 들은 景德王이 宮으로 맞아들어 戒를 받았다고 있다. 역시 景德王 代의 高僧이었음을 알게 한다.

鉢淵藪石記에 의하면 眞表의 27세 때가 上元 元年 庚子 즉 景德王 19年(760)이었으며, 地藏 彌勒 兩聖으로부터 戒法을 받았을 때가 景德王 21年(762) 壬寅이었으며, 金山寺를 重創하고 彌勒丈六像을 鑄성한 해가 景德王 23年 甲辰(764)이며 金堂에 安置한 것이 惠恭王 2年(766) 즉 大曆元年 丙午이었다. 그후 여러 곳에서 많은 敎化를 하였으므로 惠恭王代(765~780)에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서 眞表가 高僧으로서 활약한 時代가 景德王代에서 惠恭王代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의 기록에서 宋高僧傳의 것은 年代가 明記되어 있지 않지만, 年代가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兩傳(傳簡과 石記)의 年代도 서로 비교해 보면 많은 差異가 있다. 兩傳에 있는 年代 기록에 의해서 眞表의 出生年을 알 수 있는데, 두가지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먼저 ‘眞表傳簡’에 의하면, 孝成王 4년(740)에 23세였다 하니, 聖德王 17년(718)에 出生한 것으로 된다. 다음 ‘鉢淵蔽石記’에 의하면, 景德王 19년이 27세 때였다 하니 聖德王 33년(734)에 出生한 것으로 된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의 眞表가 出生한 年代가 ‘眞表傳簡’에서는 聖德王 17년이며, ‘鉢淵蔽石記’에서는 聖德王 33년으로 되어 있다. 무려 16년이란 햇수의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어느 쪽이 정확하며, 어느 쪽의 出生年代가 사실인지를 알 수가 없다. 두 기록이 모두 出家는 12세의 때로 되어 있어서 出家의 나이는 똑같다.

그런데 또 眞表가 懺悔를 修한 때 및 地藏 彌勒·兩聖에게 戒法을 받은 해가 서로 다르다. ‘眞表傳簡’에 의하면 그가 仙溪山 不思議庵에서 亡身懺悔를 修하여 2·7일에 地藏 菩薩을 만나 淨戒를 받은 것이 孝成王 4년(740) 23세 때이며, 곧 靈山寺로 옮겨가서 勤修하여 彌勒菩薩에게서 占察經과 證果簡子를 받았다고 있다. ‘鉢淵蔽石記’에서는 그와 달리 眞表의 27세 때(景德王 19년·760)에 邊山 不思議房으로 들어가 修道를 시작하여 3년이 되어도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發憤하여 勤修懺悔한 끝에 3·7일을 채우고 地藏·彌勒 兩聖으로부터 戒本과 簡子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가 戒法을 勤求하기 시작한 것은 27세 때이고 兩聖으로부터 授記를 받은 것은 3년째 되는 29세(景德王 21년 壬寅) 때였다. 그러므로 ‘傳簡’에서는 23세에 시작하여 同年에 證得한 것으로 되고, ‘石記’에서는 27세에 시작하여 29세에 證得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차이가 매우 심하다. 그리고 ‘眞表傳簡’에 의하면, 그가 兩聖에게서 聖戒를 받은 뒤에 金山寺에서 法施를 베풀다가 그곳을 떠나 溟州의 바닷가에서 고기배를 위하여 講法授戒한 것이 天寶 11年 壬辰 즉 景德王 11年(752) 2月 望日이라고 있는데, ‘鉢淵蔽石記’를 따르면 그보다 훨씬 후년인 上元 元年 庚子 즉 景德王 19년(760)에야 戒法을 勤求하기 시작하였으며, 金山寺에 들어가 彌勒像을 鑄成한 것이 景德王 23년(764) 甲辰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兩傳(傳簡·石記)이 전하는 年代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兩傳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年代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 때문에 오히려 정확한 年代를 알 수 없고, 어느 出生年이 옳은지 조차 알 수가 없게 되어 있다. 다만 聖德王代(702~737)의 中年 무렵 또는 그보다 조금 후년 쯤에 出生하여, 景德王代를 중심으로 해서 惠慕王代에 이르기까지 크게 教化를 펼치다가 入寂하였다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 ② 出家와 修道

宋高僧傳의 眞表傳에서는 出家動機가 되는 개구리 이야기는 있어도, 몇살 때 어느 설 누구에게로 가서 出家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통 킴及이 안 되어 있다. 다만 스스로 深山으로 들어가 머리를 깎았다고만 있다.

三國遺事의 眞表傳簡과 鉢淵蔽石記에서는 모두 12세에 金山寺로 가서 出家하였다고 있다. 누구를 스승으로 하였느냐에 대해서 ‘傳簡’에서는 崇濟法師, ‘石記’에서는 順濟

法師로 하고 있는데, 이 崇濟와 順濟는 同一 인물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眞表는 12세에 金山寺로 가서 崇(順)濟法師에게서 得度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修道에 있어서도 表現上의 차이는 조금 있긴 하나 兩傳(傳簡·石記)이 거의 비슷하다. 地藏과 彌勒에게 戒法을 親受하기 위하여 修道를 시작한 동기가 스승의 敎示에 의하였다는 것도 비슷하고, 또 修道의 方法도 懺悔를 修한 것이 같고, 修行에 있어서 身命을 돌보지 않은 점이 같다. 宋高僧傳쪽에서도 修道만은 兩傳과 비슷하다. 彌勒에게 직접 戒法을 받기 위하여, 流血 또는 手臂折落하면서 (3·7日을) 撲石(扣石) 懺悔를 勤修精進하였다는 것은 3種의 傳이 모두 같다.

### ③ 得法과 行化

眞表가 地藏과 彌勒 兩聖에게서 戒法을 받았다는 것은 3傳(傳簡·石記·眞表傳)이 꼭 같다. 그 得法의 내용도 비슷하지만 조금씩의 차이가 있다.

‘傳簡’에는 地藏菩薩에게서 淨戒를 받고, 다음에 彌勒에게서 占察經과 證果簡子 189 介를 받았는데 특히 第8簡子和 第9簡子是 彌勒의 手指骨이며 나머지 簡子是 모두 沈檀木으로 만든 것이며, 이것으로 세상에 傳法하여 濟人의 津筏로 삼으라고 彌勒은 付囑하였다고 있다.

‘石記’에는 처음 地藏으로부터 袈裟와 籤을 받고, 다음에 地藏과 彌勒으로부터 摩頂讚嘆함을 입고 地藏에게는 戒本, 彌勒에게는 彌勒의 手指骨로 만든 九者 八者의 2簡子를 받았는데, 특히 彌勒으로부터 ‘大國王의 몸을 받은 뒤에 兜率天에 날 것’이라는 記別(授記)을 받았다고 있다.

‘眞表傳’(宋高僧傳 등)에는, 地藏으로부터는 感應을 받아 힘을 얻고, 彌勒으로부터는 摩頂讚嘆함을 입어 三法衣와 瓦鉢을 받고 眞表라는 이름까지 얻었으며, 또 非牙 非玉의 2籤(簡子)과 108籤의 懺法 및 付囑을 받았다고 있다.

이와 같이 그 傳에 따라 조금씩의 차이와 특징은 있지만 地藏과 彌勒에게서 感應을 받고 戒法을 얻었다는 사실은 모두 같다.

‘眞表傳’(宋高僧傳)에는 兩聖으로부터 戒法을 받은 후에 眞表는 곧 金山寺를 세우고 살았다는 것만 있을 뿐, 그밖의 行化에 관해서는 言及이 안 되어 있다. ‘傳簡’과 ‘石記’의 兩傳에는 비교적 여러가지의 行化事實을 전하고 있다. 兩傳에서 傳하는 行化 사실이 同一하지는 않지만 두 가지를 합해서 보면 理解에 좀더 도움이 될 것 같다.

兩傳(傳簡·石記)에 의한 眞表의 行化를 그 줄거리만 본다면, 처음으로 金山寺에서 法施를 크게 베풀고, 다음에 俗離山으로 갔다가, 溟州 海邊으로 가서 海族(魚族)에게 戒法을 說하고, 高城의 金剛山으로 가서 鉢淵寺를 세워 占察法會를 開設하였으며, 여기에 머물면서 백성들을 救濟하고, 또 國王의 迎入을 받아 宮中에서 說戒하였으며, 그리고 永深을 비롯한 훌륭한 弟子들에게 敎法을 傳하여 길이 流布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 2. 眞表의 戒法과 그 中心思想

이상과 같은 眞表의 傳記를 통하여 우리는 그의 行跡에서 많은 神異를 보게 된다. 그 때문에 明의 神僧傳에 수록된 것인지도 모른다. 日本 學者 忽滑谷快天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서 인지는 모르나, “三國遺事に 실려있는 眞表傳簡과 關東楓岳鉢淵藏石記는 모두 荒唐의 記事로 채워져 있다……. 宋高僧傳 卷14에도 역시 眞表의 傳이 있지만 하나도 取할 것이 없다.”<sup>29)</sup>고 하였다. 그러나 眞表의 行蹟은 說話的 傳記로 전하여지는 것이므로 그렇게 한마디로 단정해 버릴만큼 無價値한 荒唐의 내용만은 아니다. 당시 新羅에 있어서의 占察法會 및 占察法에 의한 信行이 차지하는 比重과 그 가치 및 성격을 자세히 모르고, 또 占察經 所說의 占察法과 그 懺悔思想을 결부시켜서 고찰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 眞價(참 뜻)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본다.

神異의 事로 가득 차 있는 眞表의 行跡에서 우리는 眞表의 眞面目을 찾아내고 또 그 中心思想을 살펴보기 않을 수 없다. 앞에서 본 諸傳을 통하여 우리가 眞表에 대하여 보게 되는 공통적인 점은 첫째 그 修行이 懺悔法을 닦았다는 것과 둘째는 地藏과 彌勒의 兩菩薩에게서 戒法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셋째는 彌勒에게서 받은 筒子를 중심으로 해서 널리 戒法을 펼치고 教法을 전하였다는 것이다.

내용들이 허황하고 그 연대도 신빙하기 어려울 정도로 차이가 많은 몇가지 傳記에서 이제 들어본 세가지만은 공통되는 점으로 미루어서 眞表의 眞面目은 그래도 손색없이 이 속에 健在해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眞表의 中心思想을 아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에게서 볼 수 있는 戒法일 것이다. 그가 五輪撲石으로 피를 흘리면서 懺悔를 修한 것도 戒法을 懇求한 때문이었고, 그후 그의 생애를 통하여 보여지는 行化에서 講法授戒리던지 戒法을 說했다는 것으로 일관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眞表는 지극한 수행과 간곡한 참회로 戒法을 勤求하였고, 그리하여 끝내 地藏과 彌勒의 兩聖에게서 戒法을 받았으며, 또 남을 教化하는 데에도 이 戒法을 說하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眞表는 戒法으로 일관된 戒法의 行化者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眞表가 얻은 戒法과 傳한 戒法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을까. 戒法 그 자체가 眞表의 中心思想이었을까. 아니면 그 戒法을 통해서 그의 中心思想을 볼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眞表의 中心思想 또는 그의 독특한 教法을 알기 위하여 이상과 같은 몇가지 문제를 그의 行跡史實에서 例를 들어 考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眞表傳簡’에 보면, 眞表가 亡身懺의 수행으로 戒를 얻고자 한 그 動機에, “그의 스승(崇濟)이 말하기를 ‘내 일찍 唐에 들어가 나중에 五臺山으로 가서 文殊菩薩에게서 五戒를 받았다’고 함에 眞表가 ‘얼마쯤 勤修하면 戒를 얻게 되겠습니까? 하자, 崇濟는

29) 忽滑谷快天著 朝鮮禪教史 p. 72.

정성이 지극하면 일년 못가서 얻게 되겠지. 하였다. 이에 眞表는 修行의 길에 나섰다.” 라고 있다. 이로 미루어 眞表가 얻고자 한 戒는 일론 보아 五戒였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하여 그는 지극한 懺悔修行으로 2·7日만에 地藏으로부터 淨戒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彌勒(慈氏)에게서 직접 戒法을 받는데 뜻이 있었으므로 수행을 중지하지 않고 계속 勤勇하게 참회법을 닦았다. 그 결과 彌勒으로부터 占察經과 證果簡子 189개를 받았으며, 특히 이때 彌勒은 眞表에게 “이(189 簡子)중에서 第八簡子是 新得妙戒에 喩하고 第九簡子是 增得具戒에 喩한다. 이 두 簡子是 나의 手指骨이며, 나머지 簡子是 모두 沈檀木으로 만든 것인 데 諸煩惱에 喩한 것이다. 너는 이것으로 세상에 傳法하여 사람을 제도하는 방편(濟人津筏)으로 삼으라.”고 하였다. 그뒤 眞表는 金山寺에서 해마다 開壇하여 法施를 크게 베풀었으며, 溟州(阿瑟羅州)의 바닷가에서는 고기떼를 위하여 講法授戒하였고, 宮中으로 들어가 國王에게 菩薩戒를 주고 모든 王族들에게도 戒品을 주었다.

여기서 우리는 眞表가 地藏에게서는 淨戒를 얻고 彌勒에게서는 占察經과 證果簡子를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그가 나중에 講法授戒하고 또 菩薩戒를 주고 戒品을 說했다는 것에서 그의 戒法의 내용을 알 수 있으리라 본다. 즉 앞에서도 본 것처럼 그가 地藏에게서 얻은 淨戒는 바로 五戒와 菩薩戒 및 具足戒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얻고 또 說한 戒는 별다른 眞表만의 특유한 戒가 아니고 일반 佛敎人의 공통된 戒였을 것이라 본다. 그러나 그가 彌勒에게서 占察經과 189개의 簡子를 받고, 그것으로 세상에 傳法하여 衆人 濟度의 津筏(方便)로 삼았다는 내용에서 眞表의 戒法이 특이한 성격을 지녔음을 알게 된다.

또 鉢淵藪石記와 眞表傳(宋高僧傳 所載)의 경우를 보기로 하자.

鉢淵藪石記의 경우에는 眞表가 恩師 順濟로부터 沙彌戒法과 供養次第秘法 및 占察經을 받고, “너는 이 戒法을 가지고 彌勒과 地藏의 兩聖前에 나아가 懇求懺悔하여 親히 戒法을 받아 세상에 流傳하여라.”는 가르침을 받들고 수행의 길에 올랐다고 있다. 그리하여 彌勒像前에서 戒法을 勒求하다가 地藏으로부터 加持를 얻어 袈裟와 鉢을 받았으며, 3·7日이 차는 날에는 天眼을 얻고 地藏과 彌勒의 摩頂讚嘆을 받아 地藏으로부터는 9者와 8者의 題가 쓰인 二性(2簡子)을 받았는데, 특히 彌勒은 眞表에게, “이 두 簡子는 나의 手指骨이며 始覺과 本覺을 비유한 것으로 9者는 法爾요 8者는 新熏成佛種子이다. 이 果報로 너는 죽은 뒤에 大國王의 몸을 받았다가 兜率天에 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나중에 眞表는 金山寺에서 다시 彌勒의 感應을 입어 戒法을 받았다. 그뒤 그는 여러 곳에서 授戒하고 戒法을 說하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奉持하여 三寶에 致敬케 하였다. 또 그는 不遠千里하고 戒法을 求하여 찾아온 永深과 融宗등 大德이 勇猛히 懺悔하여 法門받기를 지극히 원함으로 傳敎하여 袈裟와 鉢 및 供養次第秘法과 占察經과 18

9姓(簡子) 및 彌勒의 眞性인 9者和 8者를 주면서, “……이 教法에 의하여 人天을 널리 濟度하고 後世에 流布하라.”고 하였다.

眞表傳(宋高僧傳등)에는 彌勒에게 직접 戒法을 받고자 眞表는 온 몸을 땅에 부딪고 勇猛히 懺悔하다가 地藏의 感應을 입어 現身激勵를 받고, 3·7일에 彌勒으로부터 三法衣와 瓦鉢 및 9者 8者の 2簡子(籤)등을 받고는 戒를 求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懺悔를 해야한다는 것과 108簡子<sup>30)</sup>의 占察로써 上品戒 下品戒를 각각 얻는 방법등에 대한 설명과 付囑을 받았으며, 그뒤 그에게 戒를 求하여 懺罪하는 사람이 해마다 많았다고 있다.

이상에서 본 두 경우도 역시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戒法을 얻기 위하여 修懺하였고, 戒法을 얻은 뒤에는 그 戒法으로 教化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鉢淵藪石記에 恩師 順濟가 沙彌戒法和 供養次第秘法·占察經 등을 주면서, “이 戒法을 가지고 彌勒과 地藏의 兩聖에게서 懇求懺悔하여 親히 戒法을 받고 세상에 流傳하라”고 하였다는 것은 특이하다 하겠다. ‘傳簡’에서는 나중에 彌勒으로부터 직접 占察經을 받았다고 있으며, 또 戒法도 恩師에게서는 받지 않고 地藏과 彌勒에게 비로소 받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 石記는 그와 반대로 이미 占察經 등 戒法을 恩師로부터 받고 다시 兩聖에게서 戒法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어쨌든 이러한 戒法들을 준 者가 누구이던 간에 大乘佛者로서 간직할 淸淨戒法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戒 자체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그 戒法의 성질과 그 戒法을 求得하고 傳敎하는 방법과 정신 및 敎法의 내용 思想이 문제일 것이라 본다.

지금까지 우리는 眞表의 행적을 통해서 그의 생애가 戒法이라는 用語와 너무나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심하게 말해서 戒法이 그의 전부인 것 같은 인상을 거듭 보아왔다. 그러나 그 戒法은 지극하고 간곡한 懺悔의 修行에 의하여 地藏과 彌勒의 兩聖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며, 그 속에는 占察經과 그리고 189개의 證果簡子が 衆生濟度の 方便으로써 內在해 있다는 것이다. 眞表는 이와 같이 특수한 戒法을 지니고 그것으로 세상에 널리 化度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 戒法을 통해서 眞表의 中心思想을 살펴볼 수 없을 것이다.

不惜身命의 勇猛으로 勤修懺悔하여 懇求戒法 해오던 眞表의 眞意를 우리는 占察經에서 보게 된다. 占察經에 보이고 있는 懺悔法의 내용을 대충 다음과 같이 추려서 옮겨 보기로 한다.

“……처음 發心하여 禪定과 智慧를 修習하려는 자는 반드시 宿世所作의 惡業에 대한 多少와 輕重을 먼저 觀察하여야 한다. 만약 악업이 많고 두터운 자는 禪定과 智慧를

30) 이 宋高僧傳의 108籤(簡子)은 189籤의 착오일 것이다. 占察經에는 189種을 說하여 있으며, 眞表傳簡과 鉢淵石記에도 189簡子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수습할 수가 없으므로 마땅히 懺悔의 法을 먼저 닦아야 한다. 만약에 懺悔하여 淸淨하지 않고 禪定과 智慧를 修習하게 되면 많은 障礙 때문에 목적을 이루지 못하며, 도리어 失心鎗亂하거나 혹은 外道邪魔의 괴롭힘을 당하거나 혹은 邪法을 받아들여져서 惡見을 增長하는 수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마땅히 懺悔法을 먼저 닦아야 한다. 懺悔의 修行으로 戒根이 淸淨하게 된다면 宿世의 重罪도 微薄하게 되어서 곧 諸障礙로부터 떠나게 된다……. 날마다 懺悔法을 行하여 懈廢하지 않으면, 罪障이 輕微하여 그 마음이 猛利하고 意력이 강한 자는 7日을 지나서 곧 淸淨을 얻어 諸障礙를 滅除하게 된다. 그러나 衆生들은 業이 두터운 자와 얇은 자가 있고 諸根이 날카롭고 둔한 차별이 헤아릴 수 없으므로 어떤 자는 2·7日 후에 淸淨을 얻고 혹은 3·7日, 혹은 7·7日 후에 淸淨을 얻게 된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에 갖가지 重罪가 있는자는 百日 또는 2百日 혹은 千日에 이르러서 淸淨을 얻게 된다. 아무리 지독한 鈍根이나 罪障이 最重한 자라도 마땅히 勇猛心을 能發하여 身命을 돌보지 않고(不惜身命하고) 常勤稱念하여 晝夜로 修行禮懺 發願供養하고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休退하지 않고 精進한다면 千日중에 반드시 淸淨을 얻게 될 것이다……. 在家이거나 出家이거나 諸衆生들이 淸淨妙戒를 받고자 할 때에 이미 지은 增上重罪로 戒를 받지 못한다면 역시 앞에서와 같은 懺悔法을 修하여 至心이<sup>31)</sup> 되게 하여 身口意在 善相(占察法 第二輪相에 의한 占相)을 얻게되면 곧 淸淨妙戒를 받을 수 있다…….”<sup>32)</sup>

眞表의 懺悔修行과 그 戒法의 내용을 理解하는데 있어서 적지 않은 참고가 될 만한 부분이 더 많이 있지만 번잡을 피하고 紙面을 참작해서 대강 이것만 추려 보았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眞表의 懺悔行과 그 戒法이 너무나 占察經의 所說에 부합된다는 점일 것이다. 그리고 또 그가 彌勒으로부터 189개의 證果簡子を 받았다는 것과 결부시켜 생각할 때 占察經의 說에 조금도 어그러짐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다만 189簡子を 地藏이 아닌 彌勒에게서 받았다는 점만이 經說과는 전혀 다르며, 地藏보다도 彌勒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점이 占察經에 없는 사실일 뿐이다.

이상에서 인용한 經說에 佛教修行者는 먼저 懺悔法을 修行하여 宿世所作의 業障을 除滅시켜 淸淨하게 된 뒤에야 비로소 완전한 成就가 가능하며, 또 淸淨妙戒를 받고자 하는 자도 반드시 懺悔法을 먼저 修하여 至心이 된 다음에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眞

31) 이 至心에 대하여 本 占察經에서 地藏菩薩은 다음과 같이 說하고 있다. “...至心이라는 것에는 二種이 있으니 一者는 初學習求願至心이며 二者는 攝意專精成就勇猛相應至心이다 이 第二의 至心을 얻으면 능히 善相을 얻게 된다. 이 第二至心에는 下中上의 三種差別이 있는데 一者는 一心이니 係想이 不亂하여 心住了함을 이룬 것이며 二者는 勇猛心으로 專求不懈하여 不願身命함을 말하고 三者는 深心으로 與法相應하여 究竟不退함을 말한다. 이 懺悔法을 修習하는 사람이 三種의 至心을 얻지 못하면 끝내 淸淨善相을 획득하지 못한다.

32) 占察經 上卷(高麗大藏經 第13卷 p. 660~661. 大正新修大藏經 第17卷 p. 903~904).

表가 그토록 身命을 돌보지 않고 勇猛修讖하여 끝내 地藏과 彌勒에게서 戒法을 받았다  
는 것은 바로 그 經說과 부합되고 있다. 그가 地藏에게서 받은 淨戒는 經說에 있는 清  
淨妙戒일 것이며, 더욱 精進하여 彌勒에게서 經과 簡子 및 授記 付囑을 받았다는 것은  
經說과 같이 그의 修行이 완전히 成就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아 眞表는 占察經의 信奉者이며 철저한 懺悔法의 修行者였음을 알 수 있다.  
그는 宿世의 諸業障을 소멸시켜 淸淨과 至心에 이르러 戒法을 받음으로써 懺悔法을  
성취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가 地藏·彌勒 兩聖에게서 받은 戒法은 懺悔法에 의한 淸  
淨妙戒이며, 占察經 및 證果簡子에 의한 教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證果簡子에  
대하여 잠시 언급을 해야겠다. 占察經에는 證果簡子란 말이 없다. 3種 占察法(木輪相  
法)중의 하나인 第三輪相(六輪相)法에 의하여 얻어지는 數字로 占察하여 볼 수 있는  
三世果報의 善惡相에 189種이<sup>33)</sup> 있다고 하여 189種의 명칭을 하나 하나 明記하여 있을  
뿐이다. 이것을 이름하여 ‘189種 善惡果報差別之相’ 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이 189種  
善惡果報差別之相을 彌勒의 手指骨(8者·9者 2簡子) 및 沈檀木에다 새긴 簡子(집대 즉  
籤子)를 眞表가 彌勒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이다. 189개의 證果簡子란 189種의 善惡果報  
差別之相의 果를 證한 簡子라는 뜻이 된다.

우리는 대충 眞表의 戒法과 그에 따른 몇가지를 살펴 보았다. 그리하여 철저한 懺  
悔法의 實踐者이며 占察法을 集大成한 인물이었음도 알았다. 그가 實踐하고 보여준 佛  
敎 즉 그의 생애를 통하여 볼 수 있는 信仰思想을 한마디로 말해서 彌勒信仰과 占察法  
에 의한 懺悔佛敎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밖에 또 따로 그의 中心思想을 찾아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3. 占察敎法의 確立

眞表를 우리나라 法相宗의 開宗祖라고 한 學者가 있다.<sup>34)</sup> 그 때문에 지금 모든 國史  
書에는 그대로 인용하여 法相宗의 開宗祖를 眞表로 하고 있다. 眞表가 法相宗과는 아  
무런 관계가 없다는 論證을 다른 기회로 미루겠지만, 사실 現存하는 史料에서는 眞表  
가 法相宗 開祖였다는 根據를 찾아볼 수가 없다. 실제에 있어서 그가 法相宗과 관련이  
있었다 하더라도 法相宗의 開創者는 될 수가 없다. 이미 그의 行蹟과 中心思想에서도  
보았지만 眞表는 新羅 法相宗의 開宗祖가 아닌, 新羅 占察敎法의 確立者이며 懺悔佛敎  
를 集大成한 開祖인 것이다.

佛說에 懺悔法이 있고, 新羅 佛敎社會에 이미 占察法會가 있어서 懺悔法과 占察法이  
비록 眞表에 의해서 비로소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佛敎의 形態가 眞表에 의

33) 註 ①

34) 金句光 ‘五敎兩宗에 對하여’(震檀學報 第8卷 p.74~100) 및 朝鮮佛敎史叢·韓國佛敎史 (프린트본)

해서 集大成되고 確立되어졌던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당시 新羅에 있어서 眞表가 이루어 놓은 占察敎法(懺悔佛敎)은 새로운 의미를 지닌 특이한 것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新羅佛敎에 있어서 새로운 면을 보여준 하나의 특수한 佛敎形態인 占察敎法을 알기 위하여 우선 眞表 이전에 있었던 新羅의 占察法會에 대하여 잠깐 보아야 할 것 같다.

### (1) 眞表 이전의 占察法會

우리는 앞서 첫머리에서 新羅에 있어서의 占察法會에 대한 史實을 대강 보았다. 그러한 占察法會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글자 그대로 占察法會는 어디까지나 佛敎信仰行事인 法會라는 점이다.

圓光이 設하였다는 嘉禪寺의 占察法會는 愚迷를 開曉하기 위한 歸戒滅穢의 法會였었다. 仙桃山 神母의 지시에 따라 設하였다는 安興寺(智惠尼)의 占察會는 널리 一切舍靈을 위하여 善男善女를 叢會하고 베푸는 法會였었다. 이 두 法會는 모두 恒規로 삼고 해마다 베풀었던 것이므로 그 후로 줄곧 계속 되었겠지만 통일 이전에 시작되었던 占察法會였다.

통일 후의 시대로 잡고 있는 道場寺의 占察會는 她福의 母子를 위하여 後人이 每年 3月 14日에 行하던 法會였다. 이것은 일종의 追慕法會 비슷한 성격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 興輪寺의 六輪法會가 틀림없는 占察六輪會라면, 占察經 所說의 3種 占察法 중에서 세째번인 第三輪相法 즉 六輪相法을 행한 法會였을 것이다. 그러나 워낙 그 이름만이 보일 뿐이라서 자세한 것은 알 도리가 없다. 五臺山의 占察禮懺은 순전히 護國護法的인 성질의 禮懺儀式이었던 것 같다. (엄격히 말한다면 이것은 占察法會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간략하게 眞表 이전에 행해졌던 占察法會의 성격을 보았다. 경우에 따라서 그 방법과 성질이 조금씩 다를지는 모르나, 모두가 愚迷를 開曉하고 佛法의 참뜻을 일깨우기 위한 信仰行事였음은 틀림이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때의 占察法會가 占察經에 의한 占察法을 행하였을 것이나, 占察經에서처럼 개인적인 懺悔修行이 따른 占察相法을 행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의 모임에서 행하던 단체성을 띤 占察行儀의 法會였음을 알 수 있다.

### (2) 眞表의 占察法會와 그 敎法

眞表에 와서도 占察法會는 행하여졌으며, 그뒤 그의 후계자들에 의해서도 占察法會는 행하여졌다. 占察法會라는 그 자체는 眞表 이전이나 이후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眞表에 와서 占察法會는 그 성격이 달라졌다. 물론 法會라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으나 어떤 필요성에 의하여 일정한 時期에 정기적으로 모여서 행하던 그런 종래의 占察法會와는 다른 성질의 것으로 되었다는 것이다. 眞表에 이르러 占察法會는 그의 敎

법에 있어서 하나의 걸가지에 지나지 않았고, 그가 확립해 놓은 占察教法속에 들어있는 극히 적은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法會라는 형식에만 占察法이 적용되었던 것이 아니고, 眞表의 佛教 전체에 걸쳐 占察法이 존재해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眞表의 佛教는 占察法이 그 전부라고 할만큼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의 懺悔修法도 또 그가 얻은 戒法과 傳한 戒法도 모두가 占察法에 관계된 占察法的인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의 佛教 즉 信仰思想全般을 懺悔佛教 또는 占察教法이라고 하며, 占察法을 떠난 眞表의 佛教는 생각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의 法會로만 존재해 있었던 新羅의 占察法會는 眞表의 代에 이르러 새로운 教法으로 形成되어 크게 教化를 떨치게 된 것이었다. 그가 法施를 크게 베풀고 많은 곳에서 講法授戒하여 널리 教化를 미쳤지만, 그것은 모두가 地藏과 彌勒으로부터 받은 戒法과 證果簡子에 의하여서였다. “너는 이것으로 세상에 傳法하여 사람을 제도하는 방편(津筏)으로 삼으라.”고 하였던 彌勒의 당부나 또 眞表 자신이 제자 永深등에게, “이 教法에 의하여 人天을 널리 제도하여 後世에 流布하라.”고 하였던 말은 모두가 이것을 뜻하고 있다. 傳法이나 教法의 내용이 앞에서 언급한 占察法에 의한 彌勒信仰의 내용, 다시 말해서 占察經所說의 占察 懺悔法에 의한 戒法과 彌勒에게서 받은 證果簡子로서 衆生을 제도하는 教法 즉 眞表의 佛教內容인 것이다. 이와같은 眞表의 教法을 占察教法이라고 하였다. 아무리 占察經說에 없는 彌勒信仰이 거기에 개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彌勒이 바로 占察法의 중요한 핵심이 되는 189種의 善惡果報差別之相을 새긴 證果簡子를 眞表에게 주었다는 것이므로 占察教法이라는 명칭에는 아무런 변동이 있을 수 없을 것이라 본다.

眞表의 教法에 있어서 특히 흥미있는 것은 彌勒에게서 받은 189개의 證果簡子중에서 8과 9의 2簡子를 특별히 중요시 하였다는 점이라고 할 것이다. 이 두개의 簡子만은 특별하게 彌勒의 手指骨로 만들었으며, (그 때문에 이것을 佛骨簡子라고도 한다.) 이것을 줄 때 彌勒은 특히, “第8簡子是 新得妙戒에 喩하고, 第9簡子是 增得具戒에 喩한다<sup>35)</sup>”고 하였다. 심지어 ‘鉢淵石記’와 ‘眞表傳’에서는 다른 簡子는 전연 무시된 감이 있다고 할만큼 두개의 簡子만을 중심으로 삼고 있다.<sup>36)</sup> 占察經에 보면, “八者是 所次受得妙

35) 이것은 眞表傳簡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인데 傳記마다 각각 다르다. 鉢淵石記 에는,

此喩始本二覺 又九者法爾 八者新熏成佛種子.

眞表傳(宋高僧傳)에는, ‘八者新熏也 九者本有焉’

이라 하였다. 그러나 占察經에는 ‘八者 所欲受得妙戒 九者 所曾受得戒具’라고 있다.

36) ‘鉢淵石記’에서는 彌勒으로부터 8과 9의 2簡子만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眞表가 永深등에게 傳敎할 때 189簡子를 전했다고 것으로 미루어 그의 教法중에 전연 무시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나, 특히 彌勒眞性 2簡子라고 하여 189種과는 별개의 것처럼 하여 있다. ‘眞表傳’에서도 彌勒에게서 2簡子만 받은 것처럼 하였으나, 籤法을 설명하면서는 108(실은 189)簡子를 언급하였으며, 역시 2簡子는 그 속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그러나 ‘眞表傳簡’에서는 189簡子중에 8·9 2簡子가 들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占察經 上卷의 189種 善惡果報相을 簡子로 보인 것이기 때문에, 8·9簡子는 8 簡子중에 포함된 것이 옳다.

戒이며, 九者は 所曾受得戒具.”라고 있는데, 眞表의 占察敎法에서는 특히 이 두 筒子를 중심으로 하였던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여기에도 적잖이 중요한 思想性이 있고, 敎法上의 必然的인 緣由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여기서 지나칠 수 없는 것은 眞表에 있어서의 占察方法이다. 물론 占察經에 의한 占察法이었음은 의심할 수 없다. 그러나 經說에 根據하였으면서도 眞表의 敎法이 특수하듯이 그 占察法에도 특징이 있을 것이라 본다.

앞에서 이미 본 것처럼 占察經에 의하면, 占察法에는 第一(10輪相)·第二(3輪相)·第三(6輪相)의 3種 輪相法이 있는데, 이것은 小指정도 크기의 木輪을 다듬어 10개 또는 3개 또는 6개를 일정한 규격과 법칙에 따라 만들어서 占察할 때에 이것을 던져서 집치는 것이므로 木輪相의 占法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木輪에 새겨진 글자와 숫자에 의하여 善惡吉凶의 果報를 집치며, 이러한 占相에 의하여 나타나는 善惡果報의 差別相이 189種이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眞表에 의하면 이 189種의 善惡果報差別相을 하나 하나 새긴 189枚(介)의 筒子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筒子에는 이미 앞에서 수차 언급되었지만 柱 또는 籤子라고도 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서 점을 치는데 쓰는 점대 또는 그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木片(竹片)등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占察經에서 보게되는 木輪과 비슷한 성질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189개의 筒子에는 단순히 189種의 善惡差別相만을 표시한 데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占察經의 說에 따른다면 189種의 善惡差別相은 숫자에 의해서 이미 經속에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筒子에다 기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단순한 善惡相을 기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眞表의 敎法에 있어서 傳法筒子라는 중요한 위치를 점할 수도 없을 것이며 그들에게 있어서 그토록 귀중한 信仰物이 될 수는 없을 것이 아닌가 본다. 그리고 筒子라는 명칭이나 그 성격으로 보아서 經說에서의 木輪과 같은 用途의 것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까지 본 ‘眞表傳簡’이나 ‘鉢淵石記’에서는 筒子の 用法같은 것이 통 보이지 않으므로 그 자세한 것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眞表傳’(宋高僧傳)에 歸戒滅憊의 占察方法이 간략하게나마 언급이 되어 있으므로 筒子の 用法 및 眞表가 행한 占察法에 대하여 조금은 理解 할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겠다.

앞에서 眞表의 行蹟을 볼 때 ‘眞表傳’(宋高僧傳)의 條에 이미 그 대략의 줄거리를 옮겨 봤기 때문에 중복되는 감이 없지도 않겠지만, 그 대강은 이러하다.

戒를 求하는 사람은 먼저 懺悔를 해야한다. 90日이나 혹은 40日이나 혹은 3·7日을 懺悔하여 지극히 精進하고 그 期限이 차서, 9者와 8者의 2籤(筒子)과 108煩惱名을 적은 108籤을 합친 筒子를 佛前에서 던져 筒子が 땅에 떨어진 결과에 의하여 罪業이 滅하였는가의 여부를 알게 된다. 筒子が 땅에 떨어졌을 때 108筒子が 사방으로 흩어지고

8·9 두 簡子만이 壇의 한 가운데에 오뚝 서 있으면 上上品戒를 얻게 되고. 만약에 많은 簡子が 벌리로 흩어졌으나 혹시 두어개의 簡子が 8·9 두 簡子에 접촉되어 있으면 그 簡子들에 적힌 煩惱名이 무엇인가를 보고 다시 懺悔하여 그 煩惱簡子和 8·9 簡子를 함께 던져서 그 煩惱簡子が 떨어져 나가면 中品戒를 얻게 된다. 만약에 많은 簡子が 8·9 簡子를 완전히 덮어버리면 罪業이 떨리지 않고 戒도 얻지 못한 것이므로 다시 90일을 더 懺悔한 뒤에 簡子를 던져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 下品戒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簡子를 占察經에서의 木輪相의 占法처럼 懺悔를 修한 뒤에 던져서 그 결과에 의하여 얻게 되는 戒에 上品·中品·下品の 세가지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 여기에 얼른 문제점을 보게 되는 것은 189簡子が 아니라 108簡子라는 것이며 또 8·9 두 簡子를 별개의 것으로 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108이란 189의 잘못된 것이며,<sup>37)</sup> 특히 이 108籤을 煩惱懺이라고 한 것과 ‘眞表傳簡’에 189簡子 중에서 8·9 두 簡子를 제외 한 다른 簡子들은 모두 諸煩惱에 비유한다고 彌勒이 말했다는 것과를 함께 생각해 본다면 108籤이 189簡子를 말한 것임을 어렵지 않게 理解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렇다면 ‘眞表傳簡’이나 ‘鉢淵石記’에서는 자세히 보이고 있지 않지만 189簡子로써 占察하였다는 사실과 그 方法을 대강 알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의해서 眞表는 占察經說의 木輪相法 그대로가 아닌 특이한 占察法을 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三國遺事(義解第5)의 ‘心地繼祖’에서 占察法會를 果訂法會라고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보았다. 이 果訂法會라는 명칭이 永深과 心地 이후로 줄곧 불리워졌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서 알 수 없으나, 이 명칭에서 어떤 意義같은 것을 보게 된다. 즉 證果 簡子를 위주로 하여 善惡果報를 占察하는 法會이기 때문에 果訂法會라고 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이다.

이러한 占察敎法을 眞表는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였다. 그 敎法을 전할 때에 자기 敎法의 상징이며 傳法信物인 袈裟와 鉢(地藏에게서 받은 것), 占察經과 189證果簡子(彌勒에게서 받은 것)를 함께 주어서 傳法의 절차로 삼았었다. 이와 같이 眞表의 占察敎法은 代代로 전하여져서 그 體系와 傳統이 整然하게 新羅의 佛敎界에 군림하였던 것이다.

#### 4. 占察敎法의 繼承者

##### (1) 傳法 弟子

‘眞表傳簡’에는 “得法의 袖領은 永深·寶宗·信芳·體珍·眞善·釋忠동인데, 이들은 모두 山門의 祖가 되었다.”고 있다. 이에 의하여 眞表에게 法을 받은 弟子가 많았는데 그중에서 이들 永深등이 가장 뛰어난 우두머리 弟子이며, 그들은 각각 占察敎法에 있

37) 三國遺事의 撰者 一然도 義解第5 ‘心地繼祖’에서…… 而宋傳但云百八籤子。何也。恐認彼百八煩惱之。名而稱之。不探尋經文爾.’라고 하여, 宋高僧傳에서 108籤이라고 한 것은 百八煩惱를 잘못 알고 붙인 것 같으며 또 189種의 이름이 說하여 있는 占察經을 잘 살펴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어서 一家를 이루어 한 門派(山門)의 祖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眞表의 弟子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이들 得法의 領袖들에 대한 기록들을 볼 수가 없으므로 그들에 관해서는 통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이들 得法의 領袖중에서 永深이 眞表로부터 傳法의 簡子를 받고 俗離山에 살면서 克家子(後繼者)가 되었다고 있다. 다시 말해서 永深이 眞表를 이은 占察教法의 第2世라는 것이다.

‘鉢淵石記’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그때 俗離山의 大德 永深이 大德 融宗·佛陀 등과 함께 眞表律師를 찾아갔다. 그들 3人是 眞表에게, ‘우리는 不遠千里하고 戒法을 求하여 왔으니 法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절히 청하였으나 眞表가 묵묵히 아무런 응답이 없었으므로 세 사람은 桃木에 올라가 땅에 떨어지면서 勇猛히 懺悔하였다 이에 眞表는 傳教灌頂하고 드디어 袈裟와 鉢 및 供養次第秘法과 占察經과 189簡子를 주었다. 특히 眞表는 彌勒의 眞性(簡子)인 9者와 8者를 주면서, ‘9者는 法爾요 8者는 新熏成佛 種子이다. 내가 그대들에게 付囑하니 이것을 가지고 俗離山으로 돌아가서 吉祥草가 나있는 곳에 절을 세우고, 이 教法에 의해서 人天을 廣度하여 後世에 流布토록 하라’고 하였다. 永深등은 教를 받들고 俗離山으로 가서 吉祥草가 난 곳을 찾아 절을 짓고 이름을 吉祥寺라 하였다. 永深은 이곳에서 占察法會를 設하였다.”

여기서 永深 외에 融宗과 佛陀라는 두 사람의 弟子 이름을 보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은 앞의 ‘傳簡’에서 보았던 得法의 領袖 7명의 이름 가운데는 없었던 인물 들이다. 이 두 사람은 永深과 함께 俗離山으로 가서 教法을 같이 流布하였으므로 그 대표가 되는 永深 때문에 得法領袖중에는 들지 못하였는지도 모르겠다. 占察教法의 제2세가 되는 永深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알 수 없다는 점이 딱 유감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2) 簡子를 물려받은 心地

占察教法의 제2世 永深은 眞表로부터 받은 教法을 心地에게 전하였다.

三國遺事에<sup>38)</sup> 의하면, 釋 心地는 신라 제 41代 憲德王(809~826)의 아들이었다. 王子인 그는 어려서부터 孝心和 우애가 있었고 天性이 총명하였다. 15세(志學之年)에 출가하여 修道에 열중한 그는 中岳(八公山)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때 그는 永深이 眞表律師한테서 佛骨簡子(彌勒의 手指骨로 만든 證果簡子)를 전해 받고 俗離山에서 果訂法會를 設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는 곧 거기에 찾아갔는데, 그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法會가 시작 되었으므로 함께 참예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뜻을 포기하지 않고 마당에 서서 法堂안에서 行하는 會衆들을 따라 禮懺하였다. 그러기를 7일이 지난 날 하늘에서 많은 눈이 내려 쌓였는데, 그가 서 있는 돌테의 10尺 남짓 사이에는 한송이의 눈도 내리지 않았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神異하게 여겼으며, 永深도 法堂안에 들어와서 함께 禮懺할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그는 아프다는 핑계로 法堂에

38) 三國遺事 卷第4 義解第5 ‘心地繼祖.’

들어가지 않고 뒷방으로 물러가 있으면서 남물래 法堂을 향하여 禮懺하였는데 얼마나 지극하게 하였는지 팔꿈치와 이마에서 피가 흘렀다. 옛날 眞表가 懇求懺悔 할 때처럼 맹렬히 禮懺하였는데, 地藏菩薩이 와서 위로까지 하였다. 法會가 끝나서 자기의 절로 돌아가는 길에 心地는 옷 가슴속에 두개의 筒子が 끼여있는 것을 보고 곧 永深에게로 되돌아가서 그 筒子를 돌려 주었다. 永深은 그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 筒子를 넣어두었던 函을 살펴보니 봉해둔 것이 그대로 있었으나 속을 열어보니 두개의 筒子が 들어있지 않았다. 永深은 매우 이상하게 여기고 그 筒子를 도로 넣고 그 函을 겹겹으로 싸서 잘 간직해 두었다. 그런데 또 心地는 한참을 가다가 보니 역시 筒子が 아까처럼 자기 옷 가슴속에 들어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다시 永深에게로 가서 그것을 돌려주니, 永深은, “부처님의 뜻이 그대에게 있으니 그대가 筒子를 奉行하라.”고 하면서 心地에게 筒子를 주었다.

이에 心地는 筒子를 받들고 本山(八公山)으로 돌아오니 山神이 두 仙子를 거느리고 마중을 하고는 心地에게 정하여 正戒를 받았다. 心地는 筒子를 奉安할 터를 3神과의논하여 筒子를 던져서 정하고, 堂을 지어 安置하였다. 지금의 桐華寺에 그 자리가 있다. 그로부터 心地는 이 桐華寺를 중심으로 하여 占察教法을 크게 펼친 모양이지만, 그 뒤의 일은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세한 것을 알 수가 없다. 그리고 心地가 奉安한 이 筒子를 출공 桐華寺 籤堂에 安置되어 있었던 모양이며, 高麗 睿宗王이 이 筒子를 宮中에 가져다 두고 禮敬하다가 갑자기 9者の 筒子 하나를 잃어서 牙로 대신 만들어 筒子 모두를 桐華寺에 돌려 보냈는데 遺事의 撰者 一然이 보았을 때에는 그 빛이 갈아져서 새 것인지 오랜 것인지를 분간하기가 어려웠다고 있다. 그리고 新羅末에 大德 釋冲이 高麗 太祖에게 眞表律師의 袈裟 한벌과 筒子 189枚를 받쳤다는 것이 보인다.

이밖에는 占察教法에 관한 인물과 事項을 알게하는 文獻을 보기 힘들므로 더 자세한 사실을 알 수는 없지만, 心地 이후에도 계속 占察教法의 제승자가 이어 나오다가 釋冲에 이르러 新羅가 망함에 高麗 太祖에게로 가지간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 結 語

三國時代부터 新羅에 행하여지던 占察法會와 그리고 이 占察法을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信仰風教(佛教形態)를 확립시켰던 眞表의 教法에 대해서 대충 살펴 보았다.

占察法이란 말할 것도 없이 占察經의 所說에 의한 占相觀察의 行儀이다. 이 占察法은 반드시 諸佛에 供養 禮懺한 후에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일종의 懺悔 修行法이라는 것을 이미 보았다. 그러므로 이 占察法에 의한 占相行法은 일반적인 세간의 占相卜術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占察經 上卷에서는,

“世間の 諸種 占相은 聖道를 深障하는 아주 좋지 못한 惡習이지만 이 木輪相法(占察法)은 聖道를 修習하는데 따르는 많은 障難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方便이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 占察法이 經說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고 중요한 것은 아니다. 오직 佛法을 修行하는데 있어서의 方便으로서만이 意義가 크다는 것이다. 즉 聖道를 修習하는데 따르는 많은 障難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方便이라는 데에 그 참뜻이 있을 뿐인 것이다. 이 方便法은 懺悔法을 修行하여야만 그 成就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占察 懺悔의 敎法을 眞表가 확립하여 新羅社會를 敎化하였던 것이다. 아무리 經敎에 있는 좋은 意趣와 方便이라도 그것을 修習하여 실천에 옮기지 못하면 空論에 불과하다. 그 經敎의 意趣와 方便을 실천하여 所期의 목적을 이룩하였을 때 비로소 그가 가르침은 現實化하게 된다. 懺悔修法이 經敎에 이미 說하여져 있고, 또 부분적이나마 佛法의 修行人은 거의가 이것을 알고 행하기도 하지만, 이것에 의하여 證得하고 佛法의 세계를 완성해서 많은 사람들을 敎化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의 敎法은 실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占察敎法 즉 懺悔佛敎는 眞表에 의해서 확립되었다는 것이다.

眞表의 이 占察敎法은 新羅佛敎에 있어서 새로운 意義를 가져다 준 하나의 新羅의 佛敎세계였다고 할 수 있으며 新羅佛敎의 커다란 收獲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法興王 때 받아들인 佛敎가 眞興王에 의해서 新羅의인 佛敎로 터전이 잡히기 시작한 때 이후로 新羅에는 彌勒信仰의 경향이 짙었고, 또 華嚴의 信仰思想이 큰 비중을 가지고 新羅佛敎의 全般에 자리하다 싶이 그 영향력이 대단하였다. 그러나 新羅의 佛敎는 한 宗派 한 敎學에 치우치는 일없이 通佛敎의 입장을 잘 유지하고 있었다. 統一 이후에는 淨土信仰이 적지 않은 세력을 보이기 시작하였지만, 역시 彌勒信仰 및 華嚴思想과 더불어 信仰思想의 중심적인 경향들에 불과하였을 뿐, 독립적이며 차별적인 敎學 또는 宗派佛敎는 아니었던 것이다. 오직 通佛敎로서 굳립하고 있었다. 이러한 때에 占察敎法이 新羅 佛敎界에 출현한 것이었다. 이 점에서 占察敎法 즉 眞表의 懺悔敎法이 가지는 歷史的 意義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眞表의 敎法을 思想史의인 면에서 다루어 보고자한 것이 처음의 試圖였었다. 그러나 결국은 新羅 佛敎史의인 입장에서 그 역사만을 考察한데 그치고 말았다. 그 時代의 그리고 敎學의인 背景과 信仰 및 思想의인 必然性과 占察敎法 자체의 思想 全般을 좀더 알차게 다루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쉽게 여기며 다음 기회로 미루어 본다.

Summary

**A Study on Jum-chal Rite of Silla Buddhism  
and Ven. Jin-pyo's Buddhism**

*By Young-tae Kim*

This paper has considered the Jum-chal(占察) rite of Silla Buddhism, especially that of Ven. Jin-pyo's, in its historical and doctrinal aspect.

According to 占察善惡業報經(T. Vol. 17 No. 839) on which the Jum-chal rite is based, participants in the meeting cast 'lots made with wood'(木輪性) to observe what kind of Karma was made in the past, how strong is the force of them, and what their rewards will be.

The casting of the wooden lots is prescribed in the text to be performed after having made deep homages and penitence to the Buddha. In this respect, the rite is recommended as one of the most effective means to enlighten people in the corrupt age(末世).

The 'Jum-chal' has a fundamental difference from the ordinary fortune telling or divination. The religious meeting may be said a Buddhist penitential function, and was rather frequently held from the time of Three-kingdoms period.

But, in the golden age of Unified Silla, the rite assumed a new aspect, as Ven. Jin-pyo(眞表) established a new type of Buddhism on the doctrine. Ven. Jin-pyo has been wrongly identified as a monk having relation with Fa-hsiang School(法相宗) by some scholars. But he has no connection with that school. He was but a devout follower of the Jum-chal practice.

All forms of Chinese Buddhism were introduced into Silla and some of them were much successful. But, strong tendency of Silla Buddhism was to establish an all-inclusive Buddhism(通佛教), rejecting sectarianism. Amidst this trend, Jin-pyo's new type of Buddhism, definitely of Silla style, emerged. For this reason, Jin-pyo's propagation of Jum-chal practice is significant in the history of Silla Buddhism.